

학생회지



제 15호

1979. 6.

화성론주 한국학생회 발행

표지그림: 안원 김홍도의 서당도.

목 차 례

초 점	정 종 환	1
특 집		
한국고포 교육의 문제점	오 계 회	2
인간관계 교육	정 하 경	5
자녀와의 좀 더 많은 대화를	장 태 수	6
상호간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익 명	7
우 촌 칼 럼		
학생회에 부치는 글	서 두 수	8
시		
신의 섭리	이 동 복	9
거울의 사연	서 은	14
수 필		
물 방 울	김 혜 선	9
지 난 날	윤 태 선	12
상	김 병 식	13
특 별 기 고		
나그네 길에서(행길옆 주막집)	박 암	10
서 간 문		
막역한 친구에게	김 학 수	11
독 후 감		
집념을 읽고	김 종 호	14
소 식 란	편 집 부	16
독 서 안 내	최 운 환	17
회 원 주 소 록	편 집 부	18



날로 발전해 가는 이곳 교포사회의 모습을 볼때
부듯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비록 이민의 역사가
짧기는 해도 그 성장속도가 빠름은 제반 난관을 무릅
쓰고 개척정신을 발휘한 고민여러분의 피나는 노력의
소산이라는 것을 생각 할때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어느 사회이든지 문제는 있게 마련이며 어느 의미
에서는 발전하는 곳에 더 많은 문제가 있을수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데에 더 나은 발전의 가능
성이 잠재하고 있다고 볼때 문제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이곳 교포사회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녀교육문제는
특히 우리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
네 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열은 어느나라 보다도 높은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바 이 사실을 단적으로
만영하는것은 많은수의 이민가정의 이민목적이 자녀를
훌륭하게 교육 시키는데 있다는 것이다.

자녀교육을 위해 정들은 고향을 뒤모하고 낯설고
물설은 더구나 문화와 언어가 판이하게 다른 이곳으로
오기 까지는 많은것을 희생할 각오가 없이는 불가능
하다는 것을 생각할때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열은 높이
평가 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열망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교육환경,
부모님들의 관심, 자녀자신의 마음가짐과 태도 등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해결 될때 비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때 그리 용이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우선 이곳의 교육환경을 살펴볼때 언어와 문화가
전적으로 우리의 그것과 다르고 다수의 백인의 지배속
에서 소수민족의 숙명을 감수 해야할 처지에 있는 우리
로서 정신적 문화적 교육환경이 우리에게 그리 유리
하지 않은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악조건속
에서 자신의 곳곳한 위치를 지키고 이 사회에서 존속
할수 있는 길은 아이덴티티의 확립과 진취적인 기상을
견지 하는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수있겠다.
여기에서 아이덴티티라 함은 각자의 한국사람으로서의
위치 내지는 근본을 분명히 깨닫는데 주안점을 둔것
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적인 것을 배척하고 한국적인
것만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나자신의 위치와 근본을
분명이 깨닫고 미국사회에 잘 적응 할수있는 뚜렷한

자아의 확립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는 부모님, 학생자신, 한인사회, 학생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요구 된다 하겠다. 이런 바탕위에 좋은 물리적
환경을 잘 이용 한다면 약조건 속에서도 좋은 결과를
남을수 있으리라 확신 된다.

다음은 부모님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자
경제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입장에서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자녀교육에 마음돌릴 여유가
없다는 것과, 세대차, 관점의 차이등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두절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자녀교육이 물질적인 뒷바침 만으로 가능한것이 아니
라는점을 고려 할때 좀더 많은 부모님들의 관심 내지는
자녀와의 대화의 필요성이 절감된다 하겠다. 이는물론
학생자신의 부모님과의 스스로 없는 상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학생 자신의 문제로 돌아가자, 공부가 모든것은
아니지만 학생으로서의 최상의 본분은 학업연마에 정진
하는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공부에 열중
하기 위해서는 왜 공부해야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모든 행위에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힘있게 밀고
나갈수 있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존속할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할 필요가있다.
이 사회는 극도의 경쟁 사회라고 규정할수있는바 이런
경쟁사회에서 존속할수 있는 길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유일한 길임을 생각할때 다른면에서 여러가지로 불리한
처지에서 실력으로 월등해야 이길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본인자신의 노력이
필요함은 말할것도 없고 주위의 끊임없는 자극이 요청
된다 하겠다. 학생회의 활동을 이런 방향으로 모아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민사회의 교포 자녀교육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 및 해결책은 원칙적인 것만 다루어 진것
으로 이것을 계기로 좀더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
하려는 공동의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회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문제는 비록 첫번 문제
제기에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나 앞으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공동의 과제 제기란 의미에서 다시 한번
유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한국 고포 교육의 문제점 -



오 계획

— 앞으로의 이민 교육 연구 방향을 위한 소고 —

한국인의 미국에의 이민이 1902년도에 처음 시작 되었다 보면 그해수로 보아서는 적지 않다 하겠으나 그 양으로 볼때에 다수의 이민이 시작 된것은 1960년도 후반기 및 1970년도 전반기초로 볼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년령 아동의 증가도 이때로 부터라고 보겠으며 갑작스런 이민의 증가는 그에수반 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교육의 문제도 적지 않게 배출시켰으리 라는것을 반드시 문헌의 참고를 빌리지 않고라도 짐작이 갈수있다 하겠다. 사실상 교육의 문제는 몇몇 뜻있는 인사에 의하여 논의 되었으나 그때 그때의 단면적인 논의에 그칠수 밖에 없었는데 사실상 다수 이민의 역사가 짧은 현실에서 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고포자녀의 교육 문제에 대하여는 그간 몇몇 전문지상에 발표된 논고가 있으나 실험적 연구 및 체계적인 조사 연구는 아직껏 발표된것이 거의 없는것 같고 일간 신문이나 각지방 마다의 고포들의 교육현황및 문제를 발표 한것에 국한되고 있는것 같다. 그러나 그것도 자연스러운것이 교육년령 아동의 인구는 대단히 많으나 그것은 1960년도 후반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민의 격증과 그간에 일어난 이들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어볼 시간적 여유가 극히 제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될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비추어 볼때 이 고포 교육의 문제 연구는 극히 초창기에 처해 있으며 어떻게 시작 하여야 할지조차도 명확하지 않는 처지에 있는것 같다.

여기에 본 필자는 다른 이민사회에서 하여놓은 연구와 그리고 몇가지 교육의 현장 경험 및 지역사 의논의를 참고로 하여 고포교육의 문제점을 정리 하여 보고 앞으로의 논의와 연구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여 보는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문제 논의에 도움이 될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체계적인 연구가 극히 제한 되어 있는 처지에 그 문제의 제시조차도 제한을 받으며 단지 이 문제의 제시도 가설적인 문제점의에 그치지 않을수 없는 현실임을 밝혀서 본 소고의 제한점을 제시하여 두지않으면 안될것 같다. 그러나 이같은 가설적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 문제 논의를 시작할수있고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함을 지적 하여 본 논고의 의의도 밝혀두지 않으면 안되겠다. 교육은 대체로 대상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문제의 소재및 성격이 달라 진으로 이점을 고려하여 고포 사회의 문제로서 교육에 관련되는 점을 대상 아동에 연관하여 정리하였을 독자의 이해를 위하여 간단히 밝혀둔다.

문제점.

첫째 문제로서 미국이라는 문화적 이질 사회에서 고포의 자녀 교육 목표 및 진로 방향 결정을 위한 참고 근거 및 건본의 부족을 들수 있을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걸어갈 길을 잘 모르는 처지가 교육에 주는 영향에 문제가 될수 있다는 점이다.

중학을 시작 하거나 고등학교 및 초기대학의 청소년은 미래의 방향을 정할 시기에 처하여 있으며 당사자 본인이나 부모들은 이들의직업, 사회적 위치등으로된 장래의 설정에 명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을것이라고 가정 지을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사회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는것이 중요한점은 재론을 요치 않으나 미국사회의 다른 이민사회 특히 우리 이민사회와 자녀 여건이 비슷한 이민들의 진로와 걸어온 길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에 영향을 받은 문화적 사회적 요인 분석등을 관심을 가지고 견습, 이해 비판 할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중국계 이민, 일본계 이민, 필리핀계 이민인들의 자취를 살펴서 우리들의 참고로 한다는것들은 소용이 되지 말것이며 특히 비판적인 태도로서 그들이 그렇게 걸어온 길을 지양시킬수 있는것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등이 연구의 대상이 될수 있을 것 같다.

둘째로서 미국문화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영어(English)를 사용하는 Anglo-Saxon 백인의 한국인에 대한 인식 및 편견이 우리 자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를 들수 있다. Anglo-Saxon 이 가진 한국인에 대한 인식의 구체적인것은 밝혀져 있지 않으나 적어도 우리 한국인을 미개하며 그들보다 열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가정할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자녀 교육에 끼치는 문제에 대한 의문이다.

주위의 다른 단체의 우리에 대한 인식(Perception)의 문제가 교육에 연관이 될수있다는 이론적 근거는 인식 심리학(Perception Psychology)의 원리에서 나올수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사람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고 인식하는데 충분히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자신의 생각만으로 성장 하는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이 보는 관심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쥐를 가지고 한 실험에 의하면 더 관심을 받은 쥐는 경주에서 비슷한 능력의 관심을 적게 받은 쥐보다 빨리 경주를 마쳤다고 하고 있다. 이것은 쥐의 경주력 능력이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의 의식적인 기대에 영향을 받았다는 연구이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고포 자녀 교육에 무슨 연관을 가지고 있을것인가? 다수민족을 이루고 있는 백인의 한국 고포에 대한 편견(Stereotype)은 연령이 적은 취학 이전의 자녀 및 초기 국민학교 기간의 아동 교육에 더 적용 된다고 볼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꼭 연소한 아동에게만 국한되는것은 아니며 전 연령의 아동 및 청소년에게 관련 된 문제일것이라고 가정 하여야 할것이다. 이것은 아동의 지식 획득면에 직접으로 크게 영향을 주기 보다 감정과 느낌과 그것이 연상된 인성 및 태도에 영향을 줌으로서 학업성취 능력과 기회를 소실케하며 이것을 더 지속적이고 철저한 영향을 준다라는 점을 고려하여 중요시 하지 않을수 없다고 보겠다.

한국 가정의 어린 자녀가 백인 교사의 한국인에 대한 편견 아래 학습을 받을 때 암암리에 그런 편견이 투영 될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예로서, 백인 교사의 한국 아동에 대하여 한 말을 분석하여 보자. "야! 네가 그것을 할 수 있었어?" 이 말은 "너는 그것을 못할 아이로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했어?" 하는 말로 해석 될 수 있고 결국 전해주는 원 뜻은 "나는 네가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아이로는 알고 있지 않았다."는 편견을 전하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이 된다. 물론 이것은 그 말을 할 때의 억양 및 논지를 포함하여 해석된 면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백인 교사가 편견을 가졌을 때 한국인 아동에게 던진 이 말의 원래의 뜻은 교사가 가진 편견의 다른 표현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런 편견은 교사의 눈짓, 표현 및 사사건건의 아동의 학교생활 중에 보여 줄 것도 상상되는 것이다. 이같이 사소하고 또 착기 어려운 심리적 침해를 우리 자녀들이 학습에 임하여 수시로 받게 된다는 것은 교육적으로 지대한 관심 거리가 아닐 수 없다. 사소하기 때문에 대단 하랴 하나 되수가 빈번하면 아동 역시 암암리에 그것을 또 착하게 되고 거기다 백인의 아동들까지 그러한 편견을 보이게 되면 아동은 차차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활발한 심리상태에 소실을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것이 오랜 했 수가 경과 되면 아동은 적극적인 인성을 소실하고 따라서 학습의 여려면에 성취도가 낮아질 수 있고 이것은 악순환을 거듭하여 심각한 행동 문제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수민족인 백인의 그러한 편견을 그치는 일이라고 선뜻 해결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이것은 너무나 무모한 건의이며 한국인의 문화를 인식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백인의 편견을 고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여도 이를 어떻게 진행 시킬 것이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또한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교육적으로 저해되는 이러한 상태가 우리 자녀들에게 빈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이해하는 것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은 이미 상당히 도움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좋은 연구의 과제일 것이며 또한 우리 자녀에게 자기의 전통과 문화적 유산을 이해, 건문케 하여 자신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도록 가정에서 도와 줄 때 그 효과가 어떻 할까 하는 것의 문제연구는 이민한 한국 가정의 교육적 역할을 구명키 위한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 연방정부가 건의하고 또 실시하고 있는 공립 학교 교육정책과 그 중요도를 인식하여 협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들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 교육관계 인사 선정에 있어서 긍정적 정책(Affirmative Action)을 지지하며 아세아인 교사의 수를 늘리게 하는 문제, 학습 아동의 인종적 배척을 근절 함으로서 인종간의 편견을 줄이게 하는 문제, 교과과정 및 학교전체의 문화적 내용을 배합함으로서 학습 이해와 아동이 교과서를 통하여 느끼는 문화적 소외감을 줄이게 하는 문제,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중언어 교육의 지양 발전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 및 건의점 중에는 앞으로의 학적인 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 많다고 보겠다.

그 다음 셋째로 들 수 있는 한국 고도 자녀 교육의 문제로서는 둘째에 제기한 다수민족인 백인의 한국인에 대한

편견의 문제와 연결되는 것으로서 상당할 수의 우리 한국인이 오히려 백인 숭배 감 내지는 한국인 열등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그것이 아동교육에 미칠 수 있는 교육의 문제점들이다. 학업동기 유발의 원리에 의하면 학업동기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의 하나로서 "자신의 존중"을 들고 있는데 ⑤ 자신의 민족과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밑에서 자라는 자녀가 다수 백인의 학습 및 사회에서 "자신의 존중"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는 ⑥ 가정을 세워보고 그것이 영향을 주는 아동의 학업성취와 인성 발달에 주는 영향을 가정하며 보는 데서 오는 교육적 문제점들이다.

이같은 요인은 특히 연령이 어린 자녀들에게 그 영향이 클 것이라고 가정되나 전 교육년령의 아동 및 청소년이 영향을 입을 것은 말할 것 없을 것이다. 특히 이것이 처음에는 아동의 인성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그리하여 학업적화에 악순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때 ⑦ 관심을 요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백인 숭배 사상의 오류에 대하여서는 세계사를 조금만 추궁 길게 읽어도 인식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사실상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백인의 문화와 유색인종과 문화를 비교 연구하는 등으로 계속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앞에 이미 언급한 바 부모의 이같은 태도가 이민사회에 사는 아동의 인성에 영향을 주고 학업태도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등을 가치있는 문제일 것이다.

넷째로 들 수 있는 한국인 자녀 교육의 문제는 동양문화를 배경으로 한 한국문화와 서양문화를 배경으로 한 미국문화 내에서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미성년 층의 사회화(Socialization)의 차이 및 갈등이 교육 특히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것은 특히 대부분의 한국인 가정의 근래의 십년 이내의 이민이어서 아동들은 두 다른 문화권의 가치관의 갈등을 더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보아야 좋을 것이다. 한 논조에 의하면 한국인은 감정표현에 있어서 극히 제약적이라는 것, "체면"을 대단히 중히 여긴다는 것 그리고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권력층의 환심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불안정하게 자랐다고 보는 "논치"의 발달을 들고 그것들이 미국학교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아동들에 영향주는 교육적인 연관을 지적한 바 있다. 사회 그룹 상태에서 발표 및 자기 표현의 비교적 활발하다는 백인 자녀들의 학습에서 한국인 자녀의 억압된 자기 표현태도가 학습 및 인간관계에 끼치는 영향, 가까운 친구에 대한 체면 때문에 받는 제약이라든가 또 권력이나 권위에 "논치" 차림을 하도록 교육 되어온 한국 가정의 자녀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전개 논의할 때 도중에 제약음 받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미국 문화권내의 사회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한국 가정 아동의 문제 분석등을 적지 아니 중요한 교육적 문제로서 제기 되어야 할 것 같다.

이같은 교육적으로 연관된 문제는 연소한 아동에게서나 연장한 청소년 간에 다같이 볼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이같은 문화권의 격차는 이민 고도국정에 있어서 자녀와 부모간에 갈등을 초래하는 한 요인을 이름으로서 오는 의견의 대립 갈등에 합세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나타나며 교육적인 문제로서 상당히 커지는 것을 볼수있다. 미국의 가치관에 접촉도가 많고 또 동화 및 학습이 빨라 변화가 비교적 쉬운데에 반하여 기성세대인 부모의 변화는 늦거나 반발적 이어서 그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키 어려운 가치관의 차이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일이다. 이같은 문제는 사춘기의 청소년에게 심한것 같고 가장 빈번한 문제인것 같다. 이것은 비록 세대 차이 만이 아니라 문화의 차가 겹쳐 졌다는데에 이민한 한국인 가정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간의 자못 큰 문제가 되어있는 것 같다.

이러한 경우 양용 문제가 되는것은 상호간이 느끼기를 서로가 이해를 못 받는다는데에 귀착 하게된다. 자녀는 부모가 너그러히 이해 하여야 한다고 하고 부모는 자녀를 보고 부모의 기대에 어긋 난다고 한다. 이러한때에 부모의 태도에는 엄한형, 상담형, 그리고 레이자즈 페어(어떻게 하든 상관 없다는 태도)의 세형으로 나타나는데 엄한형은 상관없다는 형보다 나으나 상담형의 방법도 있다는 것은 인식할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비판 이민은 가정에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것은 시대의 어느때나를 막론하고 전 인류의 문제인것 같다. 그러나 특히 이민은 한국가정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 습관의 차이가 겹쳐서 부모와 아동 및 청소년 사이의 상호 이해를 어렵게 할것이라는데서 문제가 복잡하다 보겠으며 이에 관련되는 문화의 요인 분석을 간과 될수 없는 교육 문제의 하나가 될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의논하고 또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문제로서 초기 이민 생활에서 오는 특수한 가정형편이 자아내는 문제가 자녀의 교육에 장애를 주는 점을 들수 있겠다. 이문제는 또한 세가지로 나눌수가 있다고 보겠는데 첫째 우리에 가정의 식구가 다 다수 집단의 지배적인 의사소통의 도구인 영어의 부족으로 오는 문제로서 특히 부모와 자녀간의 그 습득 발전 정도에 차이를 둠으로서 자아내는 가족성원내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가져 오는 교육적인 문제를 들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그리고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언어에 의함을 볼때 이러한 생활의 중요한 요인 즉 영어에 의한 의사소통의 부족이 교육에 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자명한 논리일것 같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심한 정도는 일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적은것에 비례하여 또 이민의 해수가 오래인것에 비례하여 심하여 지는 경향을 볼수 있는것 같다. 언어는 대체로 연령이 작을수록 그 습득이 용이 함으로 연령이 많은 부모는 그 습득이 늦음에 반하여 아동은 빠른데서 부모와 자녀간에 영어를 사용하는 정도에 차이가 날것이라는 가정이고, 한편 연령이 작은 아동은 한국어를 잊어 버리는 틀이 빠르니 이민의 해수가 길어짐에 따라 이민한 한국인 고도 가정의 자녀와 부모간에는 영어로도 한국말로도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언어 사용 변화의 현상과 의사소통의 장애 문제가 교육에 가져오는 문제를 분석하면 아동이 부모에 대하여 멸시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부터 시작하여 이것이 부모의 전체 지도력을 잃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또 부모의 학교와의 의사소통의 지장과 그에 의한 부모의 학습보조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아동의 교육적 성취를 저해 할것이라는 가정은 여러가지로 분석을 요하는 교육적 문제를 제시 한다고 보겠다. 부모가 학교와의 접촉을 자주하지 못하고 학교의 지시사항 및 요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아동에게 주는 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한 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될수있다. 둘째로서 두 부모가 다 직장에 다님으로서 오는 정신적 신체적 피로가 아동의 교육에 소홀하게 하는 원인이 됨으로서 오는 문제 또한 적지 않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상당한 수의 한국 가정은 두 부모가 다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럼으로서 아동과의 접촉 및 아동지도의 기회를 저하 시킬것이며 이같은 문제가 아동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보아야겠다. 필요한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가 결여 됨으로서 학업성취와 규모있는 생활의 영위를 어렵게 할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수 있음직 하다. 이같은 문제는 부모가 각별한 주의로서 당면문제에 대처하고 아동과 같이하는 시간을 만들므로써 해결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나 상당한 학술적인 연구 대상으로서 분석되고 그 문제점이 밝혀져야 될것이다.

이민가정의 특성으로서 딱딱으로 생각 되는점은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한 역할에 까지 무기력 하다고 자인하는 것에 두겠는데 이것은 꼭 위험한 것이다. 이것또한 부모에 대한 멸시감을 자아내게 할것이고 그 같은 경우 강한 지도력을 심적으로 원하는 자녀에게 공백을 느끼게 할것이며 그러한 것은 자녀들을 불건전한 방향으로 가게 할것이 가정된다. 한국 이민 가정에 많은 청소년의 비행 행위등은 이러한 요인과 연관하여 분석연구 되어야 하지 않나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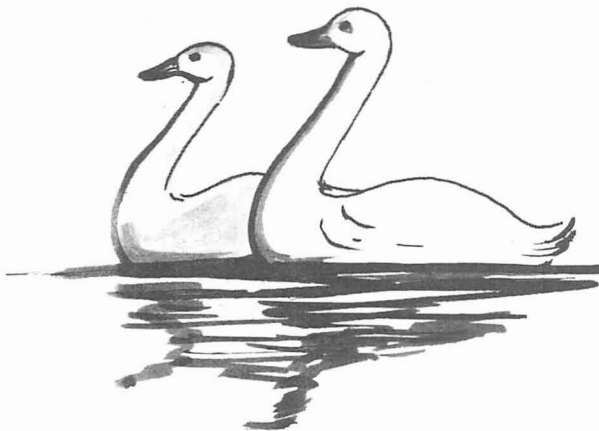
이상으로 한국이민 사회에 있는 여러 문제중 교육에 연관을 지을수 있을것이라는 점들을 추려서 다섯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고 문제해답을 모색하기에 도움이 될 가설적인 문제를 서술하여 보는것으로 이소고를 구성하여 보았다. 이렇게 볼때 우리 고포자녀의 교육의 문제가 적지 않은것을 인식 하게되는데 사실상 이민이라는 특수 여건은 문화의 격차와 언어의 문제를 가져오며 이것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교육의 문제로 나타나게 할뿐 아니라 부모의 충분한 교육적 역할을 어렵게하는 요인을 스관함으로써 간접적으로도 아동의 교육에 저해를 가져 오므로써 중첩적인 영향을 주는것 같다. 그뿐 아니라 미국 사회의 다수 집단을 이루는 백인의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의 문제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간과 하여서는 안될것에 있다. 사실상 이러한 요인이 서로 얽혀 고도 자녀의 교육의 문제를 형성케 하거니와 아직도 이민의 역사가 짧은 한국이민은 이들 요인의 분석이나 이들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호관련의 사실에 대한 학적인 분석이 거의 되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많은 조사의 과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지적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가설적인 문제와 몇개의 학술적 이론의

근거에 앞으로 더 정선 및 추가가 있어야 할것이다 이 소고가 후의 뜻있는 사람의 교육연구 활동에 자극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주-

1. Yu, Eui-Young, "Koreans in America: An Emerging Ethnic Minority," Amerasia Journal, 4:1, 117-31, 1977.
2. 1978년 본인의 학술논문 "A Comparative Study of Pictorial perception among Immigrant Korean and American Elementary School Children"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이 있음
3. 아세아계 이민사회의 논문들은 ERIC 문헌을 들추면 상당히 찾을수 있음.
4.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Perceiving Behaving Becoming, year-book, 1962, Washington: 1962.
5. Frandsen, Arden N., Educational Psychology(2nd ed.) New York: 1967.
6. 여기에 대한 가정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을것이다.
7. Sue, Stanley, Psychological Theory and Implication for Asian Americans,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55:7, 381-389, Mar. 77.
8. Kim, Hyung-Chan, "Education of the Korean Immigrant Child," Integrated Education, 15:1, 15-18, Jan. Feb. 1977. Paul S. Crane, Korean Patterns(Seoul, Korea: Hollyn Publishers, 2967) 에 많은 차료가 있음
9. Chief Sealth High School 에서 1979년 4월에 갖인 Communication Skills Improvement Workshop 에서 9th-12th 학년학생들이 말한 의견에서 요약할수 있었음.
10. 일간지 한국일보(미주판) 에는 자주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

(필자 교육학 박사)



- 인간 관계 교육 -



정 하 경

정중환회장이 나에게 원고를 부탁하는 이유를 내가 자녀 교육에 대단히 열심이 있다고 한다. 그 견해에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나도 다른 부모와 같이 자녀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라고 확신한다.

어느 신문에서 고교를 대상으로 당신은 왜 미국에 이민왔나? 하는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54%가 단순히 "잘 살아보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43%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왔다"는 대답이 나왔다. 나머지가 "새경험과 새세계에 도전하기 위해서"라고 밝혀졌다.

나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생각하여 좀더 자녀교육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바로 가졌으면 한다.

(1) 성격 교육

참다운 의미에서 교육이라고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교육은 성격 교육(Education of character)이다. 따라서 참다운 교육자(선생이나 부모)는 어떤 일정한 지식이나 예능을 생각해야하며, 또 현재 행동하고 있는 그 현실성(Actuality)에 있어서 가능성, 그리고 장래에 그 학생이 이루게 될 가능성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 관심은 전인(Person as a whole)에 두어야한다. 그런데 인격성은 본래 교육자의 영향력 밖에서 자라나는 것이지만 성격은 교육의 목적이 될수있고 또한 교육의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성격"을 교육하고자 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채는 순간 대개 즉시 저함하게 된다. 그들이 교육을 받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누군가가 자기들을 교육시키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교육을 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흥금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수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인격으로 대해야지 어떤 지배 의식이나 명령 의식에 사로 잡혀서는 안된다. 이와같이 인격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접근할수 있는 통로는 무엇보다 신뢰와 사랑이다. 학생들이 교육자를 믿을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자가 자기를 대하는 것을 자기의 생활에의 참여라고 느끼게 되어야 한다. 교육자가 자기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욕구하기전에 자기를 인격으로서 확인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야한다.

교육자는 학생들이 지금 이순간에 있는 그대로가 아닌, 그들이 참으로 있는 그대로가 아닌, 그들이 장래에 되어질 가능성으로서의 그들로 받아들여야한다. 그러나 그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내가 어떻게 찾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가능성이 형태를 이루도록 하는데 있어서 나는 무엇을 할수있을까? 하고 간단없이 교육자는 자신에게 물어야한다.

(2) 인간소외와 인간관계교육

인간은 이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인간관계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있다. 즉 인간은 극히 자기중심적이면서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특징은 "인간소외"의 의식으로 가득차 있으며 "인간상실"이 현대사회의 성격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표현처럼 되어있다. 오늘의 과학기술의 발달이 도리어 인간으로 하여금 불행하게 하는 면이 없지않아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간소외"이다.

현대사회의 인간소외 현상은 첫째 기술로부터의 소외, 둘째, 정치로부터의 소외 셋째, 전체사회로부터의 소외 등을 꼽을수 있는데 보다 숲은것은 "자아로부터의 소외"이다. 즉 현대의 사회적 여건이 자아를 상실케 하여 인간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심리적 불안을 조성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기자신 으로부터의 소외가 가장 위험한 것이다.

자기 상실, 자아로부터의 소외는 현대외감이 고도로 발달된 기계화, 제도화, 비인격화된 사회여건 때문에 오기도 하고, 한편 가정교육에서 잘못된 형성된 성격, 태도, 가치관 때문에 오는수도 있다. 하여튼 어떤 원인에서 왔든지 이런 소외현상은 병적인 상태이며 자기상실이다. 이와같이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감, 자율적 창의력, 능동적인 힘을 잃어 무기력해지고 대인관계에서 유리되어 고독해지고 자신의 보람과 삶의 의의를 잃어버린 사람이 된다.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을 불신하고 타인을 비인격화시키게 되니 결과적으로 자기자신도 비인격화하게 되어 마음들곳을 상실하고 방황하게 된다.

이상에서 말한것과같이 잃어버려져 가는 우리의 마음, 감정 인간됨을 되찾기 위해 참된 인간관계에서 살며, 자기자신의 참다운 삶을 바로 찾으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 교육이다. 인간관계 교육으로 소집단운동(Small group)을 들수있다. 이를 또는 "만남의 그룹"이라고도 한다. 우리의 사회 생활의 기본단위는 소집단이다. 가정, 직장, 친구의 모임들이 있다. 누구든지 이 소집단 속에 가담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을수 없게된다. 현대와 같은 과학이 발달된 사회안에서 인간들은 보다 친근성을 갈망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 "관남의 그룹"은 서로가 만나며 서로가 경험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서로가 돕고, 서로가 거짓없이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 회복을 위한 교육의 한방법이라고 할수있다. 이런 "만남의 그룹"을 통하여 서로가 인간성을 이해하고 사귀는 가운데 인간성의 중부함을 맛보고, 창의성을 개발하며 자기자신에 대한 자신력을 갖게하고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자신력을 주어 서로가 주체성을 가진 동료로서, 서로가 자유와 독자성을 가진 인간임을 인정하여 서로의 관계가 깊어진다. 그리하여 마틴부버의 말대로 "나와 그것(I and It)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I and you)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된다. 다시말해서 상호간에 깊은 신뢰와 사랑안에서 참되게 "만남"고 진지한 "대화"를 나눔으로 "자기상실"에서 벗어날수있다.

(3) 집은 있으나 가정은 없는시대

오늘날 우리 주변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가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집(HOUSE)은 있으나 가정(HOME)이 없는 환경속에서 살고있다. 지나친 가족의 "개인화(Individualization)"는 가정의 기본적인 성격으로서의 공동체를 무너트릴 가능성이 있어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민 고도의 대다수가 부부간에 직장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려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여 자녀교육에 등한해지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의 균형잡힌 인격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자녀들이 성장해감에 따라 그들의 학교와 친구들이 생활의 중심이 된다. 그때에 가정에서 받은 인격 성장의 영양소가 밖에서의 생활에 크게 작용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가정교육"이 없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고있다. 세대간의 "대화의 두절"이라는 것이 사회 문제로서 등장하고 있는 오늘날 세대간의 간격을 줄이고 대화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편의 노력만으론 불가능하며 서로의 관심과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격변하는 시대속에서도 우리는 사랑과 이해와 협조의 정신이 넘쳐 흐르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기계화, 물질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기계화되어 가기 쉬운 현대인이 하루하루 도맡아야 할것이 공동체의식이다. "나와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참된 인간생활이 있을수 없다. 이제 그 공동체의 건설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야한다. 이런 관계는 먼저 부모와 자녀간에 이루어져야한다.

(필자 시아틀 한인 침례교회 담임목사)

- 자녀와의 좀 더 많은 대화를 -



장 태수

벌써 미국에 온지도 8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옛말과 같이 나의 겉모습은 물론 나의 생활 역시도 변한것이 많다. 특히 이렇게 오랜만에 한글글을 쓰자니 첫머리부터 막히기 시작한다. 그러나, 서투른 글로나마 요사이 Mass Media 나 여러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있는 세대차에 대해 내가 느끼는 점을 적어보고자한다.

나의 주위에 여러 한국 사람중에는 미국에 온지 얼마 안되는 사람도 있고 꽤 오래된 사람도 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생각하는 면은 일치할때도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른점을 엿볼수있다. 그중에도 특히 어린나이에 온 사람과 어느정도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후에 온 사람을 뒀던후에 비교해볼때 그들의 생각하는 면은 물론 행동 그리고 한국의 예절습관에 대한것, 하마못해 옷차림과 음악 듣는것까지 어딘가 틀린점이 있는것을 볼수있다.

미국 에은지 10년이넘었던 1개월이 되었던 자녀들과 그들의 부모님들과의 사이에는 이상하게도 항상 벽이있고 언제나 세대차에서 오는 문제점들이었다. 그리고 쑥스러워 하고 싶은 말도 못할때도 많고, 그것은 어쩌면 미국에서 자라고 있기때문에 자신감이있고 그리고 기대를 하는 것보다 독립심이 생겨서 일지도모른다. 왜냐하면, 이곳의 학교 교육방식이나 사회생활을보면 하나의 통일된 방법으로 공부를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개인의 개성에따라 능력에 맡기게 때문이다. 요새사람들이 흔히 "미국물이 들었다." 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미국물이 무엇인가! 어떠한 것이 미국물인가! 내가 보기에는 같은 년도에 미국에와서 거의 같은 생활을 했어도 그들의 주위환경등에 따라 무엇이 다른 점을 볼수 있다. 근래에와서 특히 문제점이 되고있는 것은 언어에서 오는 것들이 많다. 나 역시도 영어가 한국말보다 먼저 나올 때가 있는데 하물며 아주 어렸을 때 은 아이들은 어떠할까? 어린 아이들은 영어를 금방 배운다. 그리고 집에서 영어를 쓰지만 어린 아이들과 그들의 엄마 아빠와 대화가 잘 안통 할 때가 많다. 그러기에 밖에서는 활발하게 친구들과 뛰놀던 아이가 집에서는 꿀먹은 벼어리가 되어 조용하게 있는 것을 몇번 보았다. 만약 그 아이가 크면 부모님과 사이가 얼마나 낫까? 생각해볼 문제다. 어느 신문에선가 기자가 쓰길 "미국에서는 자식들이 부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누를려고 하는 수가 많다." 라는 기사를 저의 아버지가 읽어주신적이 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말하시는 것같이 미국에 오신 이유가 자녀들이 커서 잡되기 위하여 그리고 좀 더 나은 교육을 시키고자 오신 것 아닌니까? 그래서 아침일찍 직장에 나가시고 고된 직장생활에도 자녀들 교육생각하여 참고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은 자식이 무엇인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물어볼 때 그것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 때 도움을 청하면 그것은 부모를 존경하기에 어주어 보는 것인데 부모님의 생각으로 무조건 반대를 하시는 것보다 먼저, 왜 이애가 이런 뜻을 갖고있으며 왜 물어보는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무조건 자식을 꼭 손아귀에 잡는다고 해서 그들이 잡힐려고 할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욱더 사이가 벌어 질 것이다.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학교나 재대로 가는지,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과 만나서 자식들의 학교생활을 물어 보셨을까? 물론 부모님들은 결국 자식들을 위해 힘든 일을 하시며 이국땅에까지 오셔서 고생을 하시지만 거의 모든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시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오셔서 일찍 주무시니 자녀들과 부모간의 회화란 진지하게 토론 할수 있는 시간이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자녀와 부모간의 사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멀어져간다. 우리는 좀더 부모님과 시간을 자주 갖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을수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서 삶을 우리의 후세에게 한국의 고유예절과 우리의 언어를 전해주고 일본사람이나 중국사람들의 후세와 같이 거의 미국사람과 같은 생활보다는 우리의 자손에게는 언제나 한국의 일을 이을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금 힘들어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보다는 사회에서 알아줄 한국인이되어 부모님이 고생하신 것에 보답을 하여야 하겠다.

(U.W. 학부 3년생)

- 상호간의 이해와 사랑을 -

의 명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이라 나는 생각한다. 하루 생활의 출발점과 안정된 가정의 포근한 잠자리에 누워 하루를 정리하며 삶의 반성과 새로운 목표를 세울수 있는 곳도 가정이라 하겠다. 이 가정 생활속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밀접한 관계가 아닐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며 그들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며 또한 이해 해 줄 때, 또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며 그들의 의사를 거러낌없이 전할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라 일컬을수 있지 않을까?

우리 주위를 둘러보자. 이 이민 사회속의 우리 가정들을. 그리고 부모들과 자녀간의 관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담이 이들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때로 "요즘은 부모들은 우리들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 "이것은 세대 차별때문이다." 라는 말을 나는 줄곧 듣는다. 물론 세대 차별로 인해 어른들은 요새 젊은이들의 사회 생활이나 행동을 이해해 줄수 없이는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 이 점을 환경의 지배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라 믿고 싶다. 익숙하지 않은 이민생활에 시달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옛날과 같지 않은데 놀라며 무엇인지 모르는 의문과 함께 걱정어린 잔소리를 길게 하신다. 그러면 학생들, 즉, 우리들의 생활은 어떠한가. 그때도 "배워본다." "무엇이 되어 보겠다."는 하나의 의욕과 신념을 가지고 언어 장애속에서 책과 더불어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part-time 일까지 겸하면서. 언어 장애로 과거에 우리와 함께 자라났던 꿈도 실천에 옮기기는 커녕 생각지도 않았던 엉뚱한 방면으로 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복잡한 머리로 신경이 곤두서있는 우리가 집에가면 오직 잔소리만 주어질 때, 그리고 어른들의 냉랭한 눈초리만 받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수 있느냐가 문제다.

우리 모두가 환경에 익숙하게 될 때, 이문제는 해결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그전에, 어떻게 서로 이해 하도록 노력할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상호간의 이해, 사랑, 그리고 협력과 위로는 우리 각자에게 필요하다 나는 본다.



- 학생회에 부치는 글 -

- 정회장 잔송(鐵送)을 조음해 -



서 두 수

정군! 군에게 이 글을 씁니다만 그사이 욕심튼 대학을 중심한 한국학생회의 좋은 전통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일에 남달리 근심(憂念) 많으셨군요. 열에 있으면서 아무런 도움도 못되는 주제에 한량없이 긴(緊)히만 생각되는 학생제군들의 모습은 언제나 정당기만 한 것이어서 간혹은 일도당토 아니한 고언(苦言)을 했을것이 딱 미안 하군요. 더구나 회장인 정군에게는 무척 도리가 아니었는지 모르겠군요. 쉬 귀국 하신다니 섭섭하기 바아 없으나 가서 할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을 고국에서는 정군에게 은갖 축복이 있들기 바랍니다. 여기서 정군이 심어 놓은 씨앗을 고히 키우는데 총명 과 정열을 아울러 간직 하고있는 후배들이 범연(凡然)치 아니 한것이 기쁩니다.

맹자(孟子)가 그 진심편(盡心篇)에서 현철(賢哲)히 말한것이 있어 천하에 맑은 나(樂) 가운데 삼락(三樂)을 뽑아내고 그 셋외마지막것으로 놀이 평가(?) 한것이 「득청하 영재이 교육(得天下英才而教育)」이라고 한것이 있는데 나로서는 아예 감당 못해은 것이었으나 혜종(慧聰)한 제군들의 모습을 정기 잃어가는 눈동자로 이곳 대학에서 바라 보아 오기를 거친 4반세기 하고보니 무재무능(無才無能) 한 나로서도 마음튼튼 해지는군요. 옛때에 그 누구 인가가 있어 탄(嘆曰) 「연 오십이 지 사십구년비(年五十而知四十九非)」라고 하였다는데 그냥 그대로 그사람을 나에 겨누어서는 조속한 편이군요. 나는 과 칠십이 부지 육십구년비(過七十而不知七十九非)이어서 실소, 실소(失笑) 되는군요. 이러한 내가 이곳 대학에서 지내다 보니 어디서 그런 영양이 공급 되었는지 한것 고부라지면서 언성 크기 곳 크기만 한 고를 아무데나 쾨 들뜨기를 곳잡 해서 기껏해서 뽑는 호기(豪氣)가 헛세가 아니라 쯤세도 어저구니 없게 조삼(朝三)이라다가 모사(暮四)라 내세우는 사람님께 틈바구니에 끼어 살다보니 피울줄 모르는 담배에 부칠 불이 가끔 생각되기도 했군요. 못피우는 담배불을 빌지혜는 그러나 종당(終當) 내 철학이 받아드리질 못해 불이 필요하면 부싯들을 스스로 만들어라도 보아야 겠다고 어림없는 고집을 코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 내 나름으로 읊다 여겨보마 淸화이 불취후(之火而不取醜)하는 자신을 못 마땅히만 가름해 없는 침을 내다말다 하다보니 4반세기의 시간이 나를 내동댕이 치고 지나가고 말았군요. 진시만각(眞是晚覺)이군요. 가가(呵呵) 생각사록 「미(微)에 즐러스뽀 「고(苦)」 소(笑)만이 찾아오는군요.

내가 증학시절에 키가 적어서 고실 댄 앞줄에 핏기 도무지 없는 얼굴로 앉아서 뵈던 원 두루마기를 으엿하게 입으시고 흰 수염을 점잖으시게 바람에 날리시면서 가르치시던 선생님이 상기 그리울 때가 이제 저제 많군요. 그때 이미 대유(大儒)이셨으나 시절이 하 수상(殊常)하여 나와

같은 어린것들을 앞에 앉게 하시고 강개마저 쉬이신 가다듬은 목청으로 자연스러운 위엄을 갖추시면서 가르치시던 한문시간이 지금도 가끔 머리에 떠오르는군요. 정군! 한번은 월급으로 해서는 가봉이니 벽지수당이니 사택료이니 앞כות은 꽤(牌)를 채운 덧부치가 있어 심지어는 「어머니」란 말도 「오모니」로 밖에 발음못해서 그렇게 했는지 제 아버지앞에 두다리를 쭈 펴고 담배 하나는 피울줄 아는 그들 도덕(?)이 있어서인지 한국말을 공부한다는 이유로 내는 조선어 장려수당 까지 누덕이처럼 두덕 두덕 덧부쳐서 월급날인 매달 21일이 종정스러울때 이들의 반도 못되는 월급으로 심지어 손자아이들 학교보내는 고역까지 맡으셨는듯한 이 노학자 선생님을 낭낭하기로는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하나인 구양수(歐陽修)의 송창송부(憎蒼蠅賦) 를 가르쳐 주셨군요. 그 허투(虛頭)는 蒼蠅 蒼蠅 吾嗟侑之爲生 인데 토를 달아 蒼蠅 蒼蠅 아 吾嗟侑生 카노라

고 낭낭히 읽어주시면서 창송(蒼蠅)은 더러운데 잘 나들어서 푸르게 번들번들해진 큰 쉬파리가 웅웅하고 날잡이라도 잦으면 정신이 날듯한 더운 낮에 방안을 침입하는것을 구양수는 불쌍타 탄식 한 모양인데 불쌍한것은 이파리에 성파(成火)된 자기를 그래도 미화하고있는 구절이군요. 토(吐)를 다는것은 현토(懸吐) 라고해서 시험때는 강그리 한자로 내려이른 몇줄을 적당히 구독(句讀)하여 현토를 하고 「석의(釋意)하는 것이 이선생님의 시험이었음니다. 씩은 고기면 성찬(羹饌)이나 격을 못차릴 때는 슬그머니 속간(廁間) (지금은 무슨 화장인지 모르나 화장실이라고 서울에서는 말이 달아진것 같군요)에를 갔다와서 방안이 시그그러울 정도로 야단법석 날아다니는 창송(蒼蠅)이 오직 이러한 쉬파리에 대한 명칭이기만 하다면 좋겠으나 우리는 이러한 파리의 웅성대는 꿀을 훔내내는 인간의 씨앗도 우리 주변에 간혹 있는듯 실어 아까말한 「微+苦+笑」가 분태종(分來種)인지 모르나 성립 될수있는 웃음이 다시 나오는군요. 이러한 웅웅 소리를 다 아는 바이지만 와싱턴대학의 일부 당토자는 학생제군이 그토록 진지하게 점잖게 진정한 한국문학 계속의 일에 이깁게애웁 저 거짓말에 「웁」 하는가하면 대학생의 숨씨로는 찍어린 수범으로 한국측에서 원지도 않는것을 슬그머니 그들의 정치력을 이용하려고 뒷꿈무니로 가져다 주는 만화를 이르는바 대학의 신문과 한페이지를 온통 차지한 일은 학생제군들이 아다시피 뵈일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변한 일이기도 하였군요. 대학에서는 모르는 일인데 서울에 있는 산학재단이 불췌 정치적으로 증회(贈賄)라도 한것같이 만들어서 5 「微+苦+笑」의 한 토막이 되기도 하였지 않았소. 그러나 저러나 간에 나는 한국의 학문과 문화는 어느나라고 어느대학간 그들에게 구구히 팔기에는 너무나 값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나의 착각이라면 오직 좋겠소? 가가(呵呵) 이것을 와싱턴 디시에 있는 미 하원의 Fraser 위원회라고도 칭되는 소위원회가 낸 「Investigation of Korea - American Relation」이라는 보고서에 넣고 있는데 그 261페이지에서 "When the issue was raised concerning outside fund..."

-물방울-

김혜선



for continuing a position in Korean literature in spring of 1977, Professor Beckmann suggested Dr. Robert Garfias Vice provost for faculty developement, Write the Korean Consulate in San Fransisco and Dr. Kim Kyung Won, the Blue House advisor.....

Garfias' subsequent letters asked for the assistance of the Korean government in helping us select a senior professor..."

라고 하고 있군요. 학생제군이나 우리들이 이러한 것은 대학이 능동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생각하는것은 금이 상상적인 이야기 였으나 장본인은 이를 우리에게 끝내 밝히지를 않았지요. 총장도 상부에서는 몰랐다고 하더니 금기야 이 위원회의 물음에는...Hogness told the subcommittee that he saw Copies of Garfias' two letters a month after they were written" 라고 답을 하고 또 "(He) told the subcommittee that no letter of correction was sent to the Korean government"

라고 까지 해서 남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앞송달총한 잠재적 태도가 나타나 있어 유감이군요. 이 나라에서 요즘 흔히있는 "To crrect the record"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기 복기 하였을 뿐입니다.

정군이 이일에 대해서도 꽤 애쓰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떠나신다기에 그전에 아서 두어 무방할것 같군요.

정군! 환국하셔서 용기백배로 맡으실일에 정진공헌하시고 정군이 남겨두고 가는 후배들을 위해 계속 서움에 있는 동창회 선배제 위와도 자주 이야기 해서 이곳에서 연학하는 젊은 한국출신 학생들이 용기를 자신과 노력과 아울러 잃기 않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건강히 모든일 순편(順便)하시기 빌면서. 1979년 5월 8일.

시

-신의 섭리-

이동복

한송이꽃이 피고 봄이 왔음을 알고
한알의 능금이 익으므로 가을이 온것을 우리는 알수있것마는
왜 우리는 주위에 둘러있는 수 많은 신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오면 열매가 맺는것도
신께서 조용히 보여 주시는 진리인것을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아! 슬프다.
고만하고 고활한 인간들이여!
꽃이 피고 봄이왔음을 알수 있는 총명을 지녔으면서
어찌 그 꽃을 피게하고 과일을 영글게 하시는 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감사 할지어다. 고마우신 신의 은총을.
두려워 할지어다. 신의 노여움을.

(U.W. 학부 3년생)

하나의 물방울이 태어나면서 그 속에는 다른 작은 생명체들과 더불어 생각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생물이 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미생물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작은 미생물들이.

이 미생물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위해서 제법 진지하게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미생물들이 세워놓은 법칙들로 인해 한때는 물방울세계에 동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점차로 그들의 생각은 깊어갔고, 그 범위도 넓어져 갔습니다. 미생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크기에 대해서는 압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생물들은 굉장한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생명체들을 하나 둘 제압해 나가 드디어는 물방울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커져가는 힘을 그들은 서로 물고 물리고, 씹고 씹히고 하는 놀이의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어느날 한마리의 미생물이 고심한 끝에 기발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방울 밖으로 나가자는 착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또한 다른 미생물들 움직임을 볼수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금 큰 힘에 부딪히고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표면장력이라는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이 힘을 이기는 길을 찾기위해 여러 낮과 밤을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의 목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크기를 압으로써 그의 생명은 만족할수 있다고 믿으며 노력을 계속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물방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탄 비행선의 밖을 내다보며 멀어져 가는, 그렇게도 거대하게만 보였던 표면 장력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는 혼자서, "거우 한방울의 물방울이었던" 하며 실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소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작은 미생물이 점점 조그만 해져가는 그 물방울을 보면서 자신이 생각지도 못하는 또 다른 커다란 물방울 속으로 빨려들어 가는 공포를 느꼈을때는, 그의 지난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음을 느꼈습니다.

그 미생물은 또 다른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 위해서(언젠가는 사라져갈 자신의 목숨의 의미를 알기위해서)

(U.W. 학부 4년생)



특별기고

- 나그네 길에서 (행길보 주막집) -

월해 박 안

타고 마로 가십니까
시애틀로 가십니까
밤길은 언제나
허전하고 쓸쓸하지요
요새는 늦 가을로 남씨가
늘 이렇게 짙궂어서
밤 낮으로
비 아니면 바람이라
이른 계절에 혼자 다니시는
밤길은 참말 쓸쓸하시지요
자아 자아
어서 어서 들어오세요
저의들은
이 신작로 길 옆에서
빨간불을 밝혀두고
뜨거운 커-피를 끓여놓고
이 신작로를 오고 가시는
손님들을 정으로
친가족같이 모시는지가
벌써 어떡해 됐읍니다
자아 자아
어서 들어오십시오
만약 손님이
오랜 인생어로 에 지쳐서
손님의 머리가 희고
얼굴에 주름살이 짙히고
다리가 아프도록
세상을 돌아 다니셨다면
아마 따뜻한 인정이
마음에 출족한때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주머니속에
여비도 넉넉지 못하실터이니
돈은 내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왔지
사람이
돈이되어 이 세상에 나온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비록
이 큰 행길옆에서
주막집을 할망정
우리도 사람, 착한 사람이니까
인정이 뭔가 좁은 알고있읍니다
아무리 요새 세상이 고약해져서

사람을
돈 이하로 푸대접을 한다지마는
그야 말이 됩니까
요새 세상이 다
꺼꾸로 물구나무를 선거지요
그러니 이 세상이
어찌 아니 괴로울리가 있겠어요
비록 가난하게는 살랑정
저의는 돈이 아니라
사람, 사람이니까
인정으로 살아가노라고 애를 쓰지요
사람과 돈을 꺼꾸로 해서
돈을 많이 모셔놓은들
돈이 선악을 압니까
돈이 형편을 압니까
이런 돈을 모아서
돈으로 되는 부처가
만약 이세상에 있을수 있다면
그는 부처가 아니라
세상을 모순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장래 자손들의 세상을
재앙으로 흉년으로 만드는 거지요
자아, 자아
손님 돈이없어도 좋습니다
손님도 사람이고
저의들도 사람이니까
실속 나라를 달리하고
민족을 달리한다고 해도
다 같이, 다 같이
하느님을 조상으로 하는
한 핏줄기 일뿐 아니라
생가와
길을 같이 해야할
한 세계안의
한 인류가 아니겠읍니까
자아, 자아
손님 들어오세요
우리가 기위 형제라면
한해 두해 같이 산다고 해서
해될것 하나 없는데
하루 저녁 잡숫고
하루밤 편안이 쉬고
가신다고 해서

거기
해될것 하나 없읍니다
집안에는
제 아내도 자녀도 있읍니다
고향데에 돌아가셨다 생각하고
하루밤
몸과 마음을 푹 쉬고 가세요
행어 내일 아침에는
비바람이 뒹을런지
누가 압니까
인생은 그 모두가 다
나그네 이니까
어찌 하필 주막만
주막이겠읍니까
생각 해보면
가정도 역시 주막이지요
자아, 자아 주저마시고
어서, 어서 들어오세요
이 늦 가을
이 비바람부는
이 밤, 가랑잎도
정척없이 흩어저가는
이 쓸쓸한 조락의 계절
인생의 장래가 같이
희미 몽롱한 이밤을
우리 지난날의
인생 살이나 이야기하며
밝은 등불 밑에서
뜨거운 커-피나 마시며
따뜻한
인정을 주고 받는
흐뭇한 한밤을 지내십시오
자아, 자아 주저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보세요 등불은 이렇게 밝고
방은 이렇게 따뜻하고
커-피는 이렇게 끓고 있읍니다

1975.11.16 밤 포-트랜드 상주에서
시애틀 집으로 돌아오는 길옆 어느 마을에
불을 밝히고 문을 열어놓고있는 커-피 집을
보고 차중에서 지음.

(필자 한인 예술협회 회장)

- 악역한 친구에게 -

김학수



미국에 온 이래 처음으로 너에게 몇 주 글썽 보내려하니 생각나는 게 많고, 한편 미안한 마음 가늘 길이 없구나. 너 이놈, 통금이 연장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엉덩이 길긴놈 요즘음도 거리를 이리 뛰고 저리 뛰기란 때한가지 아닌지?

이제 그리 저력 들도 잡혀가고, 잠시 일주일간의 방학과 함께, 이곳에서도 계절은 어김없이 순환하여 계절에는 한껏 봄기운이 완전한 이즈음에 활짝 치밀어 오는 게 있어 펜을 잡았다. 진지한 이야기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만은 실컷 우리말을 쓰보고 싶고, 그것도 가장 원시적인 언어로, 아니 가능한 한 본능적이고 육감적인 언어로 말이다. 그렇다고 내가 뭘 한글 잊어 댔었다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하루한번은 우리말로 지껄여대지만, 간간이 들먹여야 되는 한 맺힌 영어때문에, 어딘가 모르게 체증(滯症)이 남아있다. 이것도 저것도 마음껏 구사해보지 못할 때 생기는 병, 꼭 잊지 못할 때 들여다볼 수 있는 심장 한가운데의 공동(空洞)같은 거라 할까 아니면 몹시 굵은 날 느끼는 신경통환자의 찌뿌디디한 몸 같은 거 말이다. 그래서 오늘만은 너에게 보다는 더 길은 언어로 체증을 가라앉히고, 공동을 메우고, 그리고 찌뿌디디한 몸을 둘러고 하니 이해하여주기 바란다.

그러니까 일년에 2백만이 결혼하고 1백만이 이혼하는 미국(1977년도 미연방정부통계)이라는 나라를 향해서 출발한 것이 지난 여름이었지. 그리고 35명의 남장과 1200명의 창녀가 득실거리는 시아들(워싱턴 대학 의대 교수인 연구결과)에 도착한 것은 어느 한 여름밤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김포공항까지 마중나와 양눈썹 치켜 올리며 강조하던 너희 말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뭘타구? 뱀마타고 온 기사가 되라고? 마누라 옆에서 살며시 듣고있다가 하는 말이 걸작이었지, "당신 꼭 미국애들보다 공부 더 잘해야 된다"고. 천만에 말씀, 우리는 음어(陰語)를 주고받았는데! 그래, 섹스, 이것은 좀 더 뒤에 이야기하자꾸나. 하여간 나는 너의 전송을 받으며 만주 봉천 땅 언저리에서 깃발 들고 광야해메던 이육사처럼 뱀마타고 오라는 간곡한 너의 부탁을 뒤로 하고 트렐을 올랐었다.

너가 아다시피, 각자 생활로 뚝뚝 똥친 놈이지만, 워낙 인종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곳에 오니, 여러모로 당황하는데는 나 자신도 놀랐다. 지금은 다르지만 그때는 하나같이 얼마나 뽕쟁겼던지 그저 공동이 짝만 크고, 가슴이 비좁을세라 앞가슴만 잔뜩 튀어나왔지 설모있는 여자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남자들 역시 너절한 거적대기 하나 걸치고 콧수염 잔뜩 기른 코랴서니는 뱀어다놓은 거지 그대로였다. 그리고 한 여름이었던 탓도 있지만 의복이 남개가 아니라 많이 벗는 것이

남개인 세상이 이곳이구나 하고 나는 느꼈었다. 얼굴 식별하기와 이름 외기는 도 왜 그렇게 어렵던지. 그놈이 그놈같이 보였고, 이름 제대로 외기는 아예 포기했었다. 그저 똑같은 얼굴에 하이(Hi)가 모든 미국인의 이름이었다.

확실한 것은 땅덩어리가 무지하게 큰 나라라는 것이다. 특 공간이 많다. 예컨대 워싱턴주만 해도 50개주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인데 남북한 합친 면적과 거의 비슷하고 인구는 고작 남한의 10분의 1밖에 안되니(340만), 공간이 많을 수밖에. 그래서 그런지 실내운동보다는 달리는 운동을 많이 한다. 그저 펜티 하나 걸치고 땀 송송났거나 허여멀건 다리통 번득이때 하염없이 달리는 것이다. 최후의 마라톤너처럼. 특이한 것은 귀족늘어진 개가 반드시 뒤에 따른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개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니까 동반자가 될수 있다. 수많은 텔레비전 광고가 개음식에 관한 것이다. 이디오피아의 셀라시에 황제나 인도의 칸디가 다시 태어나 미국방문해서 개로감하는 것 보면 미국의 휴머니즘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탄할 것이다. 죽어죽는 인간도 많은데 말이다. 그러니 그들 나라가 오늘날 소련하고 가깝지 미국하고 가깝겠니?

자유, 넘친다. 반면에 자유를 제한하는 법도 넘치고 고소(suit)가 통수를 이루어서 달이지만, 결국 자유는 간 곳없고 고소만이 범람한다. 너같이 광기(狂氣)있는 놈, 미국왔다가는 평생 유치장 들락거릴 것이다. 어디 술집에서 하모니카도 불기힘든데 소리 꺾꺾지르고, 육자백기 한국 뽕쟁니? 당장 직행이다. 한밤중에 술 취해서 거리 배회하다간 너도 모르게 정신병원 신시켜야 한다. 선생과 제자간의 고소, 남편과 아내와의 강간죄고소, 모든 것이 고소로 해결된다. 법은 최대한 실증법화 되어가고 세련화 내지 세부화 되어간다. 결국 이데오르기의 자유라는 이름아래 때죽음할 자유(예컨대 Jim Jones 사건)와 이혼할 자유 정신이상자가 될 자유에 국한되어 있다. 생각컨데 자유란 인간이 인간적이기 위한 간절한 결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미국의 자유는 인간소외와 방향타 잃은 돌배처럼 풍요속에서 인간적이기를 상실한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컴퓨터, 음악, 스포츠 그리고 대마초, 모든 것이 컴퓨터로 처리된다. 심지어 기숙사 식권까지, 모든 학교 행정 마찬가지이다. 최대한의 편리와 간소화가 진행된다. 모든 정보는 축적되고 카드 한장에 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나의 것이란, 나의 프라이버시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마음만 먹으면 알고 싶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알수 있다. 인간은 그저 물리적인 몇지름의 고기덩어리를 지탱하면서 다니는 운반체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연치 강열한 음악만이 인간을 구원하게 된다. 운동 학생들의 책꽂이에는 전축판만이 잔뜩 꽂혀있다. 옆에는 고리작 만한 전축과 스피커에다가, 벼락떨어지는 음악에서부터 고성(絃聲)에 까지,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음악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울린다. 아니면 스노크중계에 혼신(渾身)을 바치든지. 그리고 옛날 합아버지들처럼 엽초말아 피우는 세계도 볼 수 있다. 그것이 곧 대마초(pot)이니라. 사이다값과 엽비슷한 그 흔한 맥주들 득이키면서 저 영혼의 세계로 돌입하는데 반드시 몸을



비피코야야(disco) 제대로 약발을 받는다 고 말하더라. 너에게 내가 여기서 그리스, 로마, 청, 신라의 종말처럼 미국의 종말을 본다고 말하면 너무 지나친 말일까?

섹스, 앞에서 내가 남창과 창녀 이야기했지. 그 분석 결과가 대단 흥미롭다. 남창들은 재미보고 쉽게 돈벌기 위해 남창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그 원인 분석 결과이다. 반면에 창녀는 첫째로 자기 아버지와의 섹스, 둘째 자기 의붓아버지와의 섹스, 셋째 자기 어머니 남자친구와의 섹스를 통한 비정상적 섹스남용과 그로 인한 정신적 갈등을 못이겨 알콜을 매개체로 한 창녀의 길을 들어섰단다. 적어도 한국처럼 가난내지 가정불화 때문에 창녀가 되지않은 것은 틀림없고, 소위 생피나누는 것이 그 주된 원인이며, 그리고 가장 높은 이유로 열거되는 것을 보면 흔하기도 한 모양이다. 하긴 기숙사에서 돌아가는 것 보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후조처럼 여름을 보내다가 가을학기 기숙사 돌아오면 새로운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약 보름간

힘없이 파티가 열리고, 그리고 나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남녀가 대개 짝이 되게 마련이다. 곧이어 공동욕실에서 누가 있는것 아랑곳없이 함께 목욕재계하는 것으로 사육제를 지르면, 한방 룸메이트 있으나마나 저절로 육체언어(body language)가 시작된다. 오해말아라. 그렇다고 내가 그런 룸메이트 만났다는 것이 아니다. 다행히 내 룸메이트는 나이도 잔뜩 먹은 철학과 학생으로 적어도 윤리학에 빠진 놈이다. 하여간 돌아가는 주변 정세가 대개 이렇다는 것을 관찰했을 뿐이다.

그만 여기에서 편지를 끝 맺고 싶다. 별로 심각한 이야기도없이 그것도 졸필(拙筆)로 뇌갈여쓰며니, 힘도 들고 너에게 어찌 미안하기도 하고말이야. 그러나 저러나 그리운것은 많고 앞으로 बै겨낼 일이 큰 일이다. 특히 봄이 되고보니 고향냄새 길로 솟구친다. 답례가 바퀴 틈으로 자라남거고, 그것 깨다가 된장찌개에 넣으면 왜 그렇게 좋든지? 이른 봄 다래순 따다가 산추기름에 묻힌 나물이며, 썸바귀국의 향긋한 맛, 못자리 준비하는 능부 든든하게 먹이려고 큼직큼직하게 돼지비계 썰어넣고 고춧가루 활 쫄 두부찌개하며, 해가 중첩에 뿔때쯤 자전거에 싣고오는 막걸리 배달부 가로채 미리 한 주전자 받아서 는두렁에 앉아마시면 세상 부속한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운명의 짓인지 이곳까지와서 밭고랑에 부린 인분냄새 봄바람타고 오는 것마저 그리워하는 존재가 되다니! 그리고, 봄은 물이 오르고 살(爽)냄새 자유한 계절이 아니던가. 버들 강아지 피리만들려고 남이 깎기전에 그물쳐놓은 뱀마들을 본격적으로 서둘러 봐야겠다. 어차피 미국이라는 나라 탈없는 곳이니. 아이구, 이편지 너 마누라보면 큰일나겠다. 한결같이 희랍인 조로바처럼 광기있는 놈들이라 하겠구나. 정말로 이만 즐일련다. 잘 지내라.

다음 편지에는 짹짹한 글월 보내마, 너감이 막역한 친구이니까 내 이런 객기(客氣)어린 편지보내지, 누구에게 이렇게 속시원한 이야기하겠노? 마지막으로, 딸내미 잘 크냐? 벌써 유치원 들어갈 나이 찰되지. 지금부터 단단히 타일러야 된다. 워낙 험악한 세상이라.

1979. 3. 19. 친구가 지구 저편에서.

(U.W. 신문학과 대학원생)

조용한 토요일 아침, 나는 아직 잠에서 덜깨 눈으로 이층에서 내려와 Sofa에 털석 주저앉은채 T.V를 보다 문득 떠오르는 학생회보 생각에 몸을 일으켜 펜과 종이를 주어들고 다시와서 앉았다.

내가 Seattle에 도착한때는 지금부터 5년전 일요일 오후 길고 그리고 곧게 뻗은 Sea-Tac Airport에 어머니의 앞장으로 우리의 일곱 형제는 한 봄날의 병아리 새끼들처럼 어머니를 쫓아 비행기에서 내렸다.

뽕뽕 깎은 머리와 우리의 옷차림은 촌사람이 서울을 상경한 기분을 주었다. 우리는 곧 고모부차에 싣려 Queen Anne으로 옮겨진후 2달을 그곳에서 살면서 집근처의 학교에서 football로 축구를 하면서 놀았다. 그당시에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축구공을 구할지 모를뿐 아니라 언어의 장애가 많았었다.

어느 하루도 역시 즐겁게 football로 축구를 하면서 놀고 있는데 미국인이 다가오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그럭나 우리는 그말을 도저히 죽인다해도 이해할수가 없어 멍청히 서서 서로의 얼굴을 보기만하였다. 그 미국인은 또다시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다.

그러자, 형은 "야! 아마 여기서 놀지말라는 소리인가보다", 라고 말했다. 우리들도 그말이 맞다는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지금 그곳을 가만히 생각해보니 바닥은 Concrete로 되어 있고 풀이쳐있으며 fence가 둘러 쳐있는것으로 생각해 아마 Tennis Court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그후 우락집 식구는 Beacon Hill로 이사해 학교에 입학했다. 형은 아버지와 입을하고 나는 중3, 동생은 중2, 중1,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은 국민학교에 입학했다.

나는 첫 여름방학을맞아 Olympia의 누나덱으로 놀러 가서 그 동네의 딸기밭에서 한 Box에 49센트를 받으면서 딸기를 줬다. 오후에는 밭을 가는일과 옥수수 심는일을 도와주고 밤이되면 이웃집으로 돌아다니면서 Baby-sitting도 하였다. 때로 딸기를 따다 제임 큰것은 몰래 입에다 넣고 어물 어물 씹어삼키던 생각이 아직도난다. 또한 친구들과 사다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동네집 담 넘어에있는 앵두와 자두를 따먹던 생각을하면 지금도 기본이 좋다.

그후 나는 개학이되어서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신문도 돌리고 접시도 닦았다. Seattle에는 겨울에도 비가 많이 오는 곳이라 비를맞으면서 신문을 돌리는라하면 찬 빗물이 얼굴과 손을 때려 몹시 고생의날도 보냈으며 금요일이나 토요일 오후, 식당에서 접시를 닦을때 손님이 많이와서 접시를 빨리 닦아올기다가 20장이 넘는 큰 접시들을 깨어서 주인에게 미안감을 감추지못한때도있다.

우리의 옛날에 접어 고생은 사서하라는 말이 있듯이 과연 젊어서의 고생이 성인이되어 우리들에게(나에게) 참 삶의 도움이 된다면 지난날 잠시와 고생이 나에게 보람된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이젠 나도 어엿한 대학 2학년, 이젠 옛날같이 뛰어놀 시기가 지난것같다. 시간이 나는 대로 집안일을 돌보아야겠으며 무엇보다 나의 공부에 좀더 신경을 써야할것같다. 지난 모든 일들은 나의 머리 한 구석에 추억으로 남아있고 나는 내일을 위하여 살고있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 하나님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감사기도를한다.

(U.W. 학부 2년생)

- 상(想) -

김 병 식



"알수없는 친구였어....." 나는 담배를 물고 웃점프린 눈으로 지나가는 창문밖의 상점가의 네온사인울 바라 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돌연한 그의 죽음을 연락받고 갑자기 정신이 멎어 지면서 현기증이 아찔하게 나자 차의 뺑뺑이에 힘을 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줄담배를 피웠지만 좀처럼 마음을 가라 앉힐수없는 나를 발견 해야만 했다. 거의 매일을 다람쥐들 돌듯이 반복에 반복을 되풀이하다 하나의 큰변화를 나에게 가져온일로 하여금 나자신을 깊이 생각해야 했고, 몸이 오작할정도로 추운 바람 날씨가 한층더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나는 그의 죽음을 예측했을까도 모른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죽음을 이해 하지 못할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남들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모두가 그를 부러워 할정도로 괴랄했었다. 그는 지금 "인생"이란 알수없는 미지의 낱말이라고 생각하며, 한때 내가 인생에 관해 누구못지않게 알고있다고 생각한것이 머리를 스쳤을때 자신의 어리석음을 조소를 보내고 콧소리를 내며 피식 웃었다.

나는 대학시절에 친구들과 모여 인생토론을하고 울고그른 점을 서로 다뤘던 것이 생각났을때 얼마나 내 자신이 바보였나를 새삼 느끼곤 아직 다타지도않은 담배를 쳐다보며 "담배는 인간의 적이다"라는 식으로 재떨이에 넣고 비벼 버렸다.

내가 想을 안때는 샌프란시스코주립대 3년 봄이었다. 법을 전공하던 그는 어느때와 같이 회색양복웃도리에 갈색바지를 입고 묵직한 법문서적을 들고 활활하게 친구들과 떠돌며 식당으로 들어왔다. 나는 전부더 그가 굉장이 수다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아마 그의 주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했으리라고 믿는다. 다른 친구의 소개로 같은 의자에 앉아 마주변이 없는 나는 그가 나에게 말을 할때마다 공포를로 꼭 차있던 재떨이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만 끄덕이였다. 그는 자기도 삼학년이며, 법을 전공한다고 했고 지금은 기숙사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기부모들은 두남동생과 시골에서 농장을 한다고 했다. 별로 말할것이 없었던 나는 한편으로는 바보스럽고 또 그에게 미안하기까지 했다. 나는 내 소개를 빨리 끝내고 수업이 있다하며 빠른 걸음으로 그로부터 멀어져야했던 내가 부끄럽기까지 했으며, 그가 한편 부럽기도 했다. 그는 언제나 친구들과 둘러싸여 있었기때문에 나는 그가 너무 번잡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반짝이던 그의구두는 여자들의 마음을 끌기위해서 라고 생각하며 쓴웃음을 쳤었다. 그뒤 우리는 몇번 점심을 같이 먹었다. 그는 어느때육같이 명랑했고 나역시 옛날의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그의 답변만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우리들의 인생관은 너무도 다르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도대체 통질수없는 다시말해 "물과 기름" 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금새 친해졌고 나자신도, 주위사람들도 그점을 이해를 못했다. 나는 나중에야 왜 우리들이 친해 질수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한때는 하느님께 그를 알게 된것을 감사까지 드렸다. 내가 굉장이 조용하고 침울한 반면 그는 매우 활발했고 언제나 아가씨들 이야기로 콧을 피웠고 언제나 그가 어떤 아가씨를 울려 준 이야기를 할때 마다 그는 큰소리로 웃었으며 동시에 그는 그것을 했다는 것에 대단히 쾌락을 느끼는것 같아 보였다. 우리는 그때 마다 그가 굉장한 행운아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웃어주기만 했다. 그때나는 특별히 여자를 사귄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말 할것도 없었고, 여자들 이야기를 너무하는것은 지저분하다고 생각했기때문에 나의 사생활, 특히 여자에 관한것은 누구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정말로 그를 안다고 할수있었을때는 그와 사귄지 일년이 지난 후였다. 그때 나는 그가 한편으로는 패심하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우러러보기까지했다. 또 나는 나의 바보스러웠던 점을 자책해야 했고 내가 그를 남보다 더 알수있었다는 것에 관해 굉장한 환희를 느꼈다. 그는 언젠가 Bach의 Concerto For Two Violins in D minor를 가장 즐겨 듣는다고 했다. 이곡은 걸으로는 굉장이 정열적인 음악 같지만 애수가 실여있는 10대 세계의 바이올린 Concerto의 하나였다 그는 언젠가 나에게 이곡을 들려주며 이곡의 절정에다른차 의미 모르게 명하니듣고있는 나를 보고 소리쳤다. "바로 여기야, 여기를 잘 들어봐 너는 모르겠니? 이음악이 너에게 외치는것을...." 나는 언젠가 마찬가지로 고개만 끄덕이였고 그는 끝내 그의 말을 끝내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끝내나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 하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의 마음 한구석에 슬픈영어가 맺혀 있다는 것을 느꼈고 오직나만이 그를 남보다 더 잘알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했다. 그후로도 그는 계속 괴랄했고 그의 주위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럴때마다 나는 그의 눈을보고 그의 눈에서 슬픈애수를 발견하고 그의 내심을 알아보려고 하는 버릇이 생겼다. 언젠가 내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이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야." 나는 그말에 그와 동의 하지도 않았지만 그를 그르다고 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이론은 그의 행동과 일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에 관해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인생이란 언제까지나 증만 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우리는 술을 너무마셔 나는 나의 신발도 잊어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는 밖으로 나와 나에게 손을 흔들다 끝내는 토하러는 것같이 두손으로 입을막고 집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후나는 그를 한동안 볼수없었다. (나는 전화를 몇번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몇달후 내가 그를 우연히 만난곳은 쉐켄에브뉴의 한 허름한 술집이었다. 혼자있다가 나와 마주친 그는 조금 말설이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곧 나에게 반가운듯 손을 흔들며 그와 자리를 같이 하기를 원했다. 나는 다른친구들과 동행했지만 그들의 양해를 구해 그와 자리를 같이 했고 악수를 권했다. 나는 그때 그가 굉장이 야위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고 속 들어간 그의 눈에서 나는 한층더 애수를 찾아볼수 있었다. 우리는 별다른 이야기없이 술만마셨다. 나는 그의 외부적인 변화에 놀랐고 이것은 그가 더이상 그의 자신을 속일수 없었다는 점에 다다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김종호

- 집원을 읽고 -

슬며시 회양을 권했으나 그는 피식 웃고말았다. 얼마후 그는 나에게 50불을 빌려받은 뒤 자기는 곧 불일이 있다하며 비틀거리게 걸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술집을 나갔다. 나는 이것이 마지막 그의 모습을 볼수 있었던 기회라는 기분도 심뻑하게 들었지만 이것은 모두 나의 어리석음에 불구하고, 이것이 그의 하나의 시련기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후 그의모습을 본지 삼주만에 나는 그의 죽음을 떨지않은 파출소를 통해들었고 그들은 그가 나에게 유언장을 남겨 놓았다고 했다. 언제 경찰한명이 그가 왜 그의 가족대신 나에게 유언장을 남겨 놓았냐는 질문에 나는 나도 모른다며 진화를 놓았다. 나는 그것은 굉장히 박보스러운 질문이었다고 생각했고 그의 업무적인 말 태도에 약간의 불쾌감을 느꼈다. 나는 그가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유언장을 읽어 무엇인가 더 알아보고 싶지도 않으며, 글내 나는 이 조그만한 메모를 읽지 않을것이다. 나는 지금 그를 알것같고 모를것 같기도 하지만 나는 그가 정말 하나의 낱말"인생" 아니면 "삼"의 뜻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의 왼손가락이 으겨워 짐을 느끼고 다시 피던 담배를 창밖으로 쾅개쳐 버렸다.

(U.W. 학부 3년생)

"그때였다.
"살았다."
하고 고향치는 소리가 길고 긴 침묵을 깨고 찢어져나왔다. 우리는 7호 아이의 병아리쪽으로 우르르 눈 길을 모았다. 7호 아이의 병아리가 그 노오란 발가락을 기지개 켜듯 곳곳이 뻗으며 바르르 떨어졌다. 순간 10호 병아리를 둘러싼 쪽에서도 함성이 터져나왔다.
"살았다. 우리것도 살았다."
7호쪽에 둘러섰던 우리들은 10호쪽으로 몰려들었다. 7호는 다리를 몇번 실룩거리더니 조용해졌다. 조금이라도 그들이 오빠 버티라고 발을 구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리고 살았다를 외치면서 우리는 몇번을 더 7호와 10호 사이를 뛰어다녔다. 7호가 더 늦게 눈을 감았다. 우리는 그의 조그마한 핏빛 눈알이 밑에서부터 올라온 눈꺼풀에 조용히 감겨드는 것을 보았다."

이상은 침묵의 한 부분이다.
몰인정해가는 세상을 담은 한 아파트에서는 아이들의 찢어진 욕망에서 터져나온 무섭도록 소름끼치는 우리들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7호집아이, 10호집아이, 작가도 아이들의 이름을 쓰지 않았다. 마치 한 인간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여기고 그는 오늘날의 세계와같이, 그는 아이들의 이름을 만들어내는 데에 그렇게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냥 7호집아이, 10호집아이.

"2동과 3동 사이로 난 길에 처음으로 아스팔트가 깔렸다. 이제는 보이지않게된 빌판 저 끝에서 들리는것같은 후회소리가 몇일이고 조용히 창문가를 흔들고나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된 어느날 우리는 5동에도 6동에도 새까맣게 덮여있는 아스팔트를 보았다. 그것은 아파트 건물만을 남기고 모든 흙 위에 발리워지고 있었다!"

흙이 덮여지고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히 새로 지워지는 아파트주위에 아스팔트를 깔고 있다는 것일까? 흙! 흙은 생명체의 근원이요 또 총합치인것이다. 마치 사람이 죽으면 다시 흙속으로 파묻히듯. 그러나 우리가 아스팔트를 흙 위에 덮어버리므로 해서 대자연의 살리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는지? 마치 이모든것이 죽음을 의미하듯 작가의 어두운 암시가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더 높은데서 날리면 날아갈지도 몰라."
"아직 날진 못한단말야."
"해봐. 해봐."

"피다."
하는 가느다란 외침이 누구에게선지 새어나왔다. 뒷이 저러 벌어진 병아리의 그 작은 입에서 흘러나온 피가 뾰족한 혀바닥을 적시며 주둥이에서 맺혔다.

시

- 겨울의 사연 -

서 은



할라치면 많은 말들이
사연이 되어 여기 어슬뜨게 나열되었습니다.
나는 여기 일들의 연유를 쓰고
이제는 가을에 어울리는 침묵을 결심 할것입니다.

나는 낙엽을 밟으며
낙엽의 추한 빛깔을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내겐 짓푸름의 여름이 좋았고
빛 바랜 낙엽은 다년생 구복의 억울한 조각이었습니다.

겨울날 갑자기
빨간 눈동자에 이별을 챙길때
그대는 실인은 언어만 되내일뿐, 몸부림이었습니다.
있었던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몸부림이었기에 좋았고 다정했습니다.
그토록 빨리 끝나버리던 만남이
이토록 무서운 고뇌의 씨앗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을에 가까와졌습니다. 이내 겨울엔
웁쓸리듯 이별을 했읍니다만
후린 참 가까와졌습니다.

이제 나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을 동정합니다.
이루된 사랑을 질투하지 않을 속셈으로
추한 낙엽을 몇장모아 책갈피에 끼웠읍니다.
모든 사연이 다 그러하듯
어쩔, 어처구니 없는
소시민의 변명이었습니다.

(U.W. 학부 1년생)

"너무 높이 올라갔었나봐."
 "그때. 옥상은 너무 높아. 다 죽어버렸잖아."
 "7층쯤에서 했어야 하는걸."
 "아냐, 5층에서 했어야 돼, 어제처럼."
 "내일 다시하자."
 "그때. 내일은 2층에서 날리자. 여러번 하게."

그날 모든 것을 칠없는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해서 지나쳐 버리기에는 아무때도 나 자신이 너무나 언약한가보다. 이 글속의 노오란 힘없는 병아리같이 말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나도 모르게 병아리를 응원하고 있었다. "까짓것 보라는듯이 벌떡 일어서서 막 달아나기나 하지." 하고 말이다. 병아리들이 죽으리라는 것을 업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들을 죽게끔 만든 작가가 그렇게 미워지는 것 웬일일까? 나는 한갓 병아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 이기에...

"난 그만두 겠어."
 3호 아이는 두손을 주머니에 찌르고 있었다.
 "난 이걸 기를테다. 우리집에는 새장이 있거든. 우리 아빠가 사온 거야."
 그녀의 손아귀에는 황금빛 털을 한 병아리가 갑자기 환한 곳으로 나오자 눈이 부신듯 고개를 흔들며 쥐어져 있었다. 그때였다. 누가 먼저였는지 모른다. 우리는 눈빛을 번들거리며 계집애를 향해 뛰어갔고 그녀의 머리채를 나꿔챘다. 계집애의 몸이 나뉘는 것과 함께 손에서 떨어져 나간 병아리는 뒤뚱거리며 몸을 일으키더니 그 작은 날개를 하늘 높이 쳐들며 뛰어날아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새로운 사냥감을 보았고 그 뒤뚱거리며 달아나는 병아리를 쫓아서 달려갔다.
 계집애가 악을 쓰는 울부짖음도, 우리들의 날뛰는 모습을 보고 달려오며 질러대는 6동 아주머니의 목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이미 배가 터져버린 한마리의 병아리를 향해 우리는 꿈없이 발길질을 계속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나의 신발 밑바닥을 쳐다본다. 왜?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나 자신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글썽 오늘밤 집에 갈때는 조심해서 한발 한발 디뎌야 하겠다.

(U.W. 학부 3년생)

— 작가소개 —

한 수 산

- 1946년 강원도 은진 출생
경희대 문리과 대학 영문과 졸업
- 197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4월의 끝" 이 당선 됨으로써 문단에 데뷔
- 1973년 한국일보 장편소설 현상모집에 "解氷期의 아침" 이 입선
- 1977년 장편 "浮華" 로 "오늘의 작가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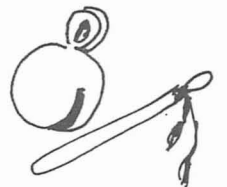
— 학생회를 도와주시는분 —

- | | |
|----------|--------------------------|
| 장온 걸총영사님 | 오 대 양식품 |
| 김홍식 | 한국식품 |
| 이창희 | 허남일 |
| 황수철 | 김광택 |
| 홍동주 | 김창성 |
| 한인회 | 신동진 |
| 신호범 | 조요한 |
| 구범희 | 그랜드식품점 |
| 이헌기 | 이완구 |
| 이충호 | 타고 마부인회 |
| 김철준 | 시애틀 외환은행 사무소장
(김연조) |
| 황동규 | 한국일보(조병우 지국장)
시애틀 사무소 |
| 김길량 | |
| 온은자 | |
- (무순)

원고모집

다음호 학생회지에 실릴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학생회의 회원, 비회원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글을 보내주시는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고를 바랍니다.

- 단; 학생사회, 교포사회에 관한 문제, 또는 국내 국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에 관한 의견 또는 토론.
- 연구 노트 또는 독후감
- 수필, 수상, 기행문
- 전공 순례
- 학생부인 유감
- 신입생 소감
- 시
- 기타 자유 주제글



- 학생회 소식 -

◇ 회원동정

- 김 시용 학형께서는 지난 2월 득너(새름). 축하드립니다.
- 김 실동 우리의 선배이신 김 실동씨께서는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직장관계로 고국에 나가 계시게 되셨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김 속자 학형께서는 금번 미대를 졸업하셨다. 축하를 드립니다.
- 박 재영 수산업에관한 공부를 하시기 위하여 6개월간 정부 장학금으로 오셨다 귀국
- 서 영민 S.C.C.C.에 다니는 학형은 이번에 Asian Pacific Student Association 의 회장으로 당선되고 많은 활약중 이시다. 축하를 드립니다.
- 신 정수 작년에 화축을 밝히신 학형께서 득너(혜락). 축하를 드립니다.
- 이 식보 현 학생회 부회장직을 맡고있는 학형께서는 금번 약대를 졸업하시고 약사면허 시험대비에 몰두. 행운을 빕니다.
- 이 정복 학형께서는 금번,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다. 축하를 드립니다.
- 윤 봉용 경제학과 대학원에 계시는 학형께서는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시고 논문차 귀국. 회원 여러분께 일일이 인사를 못드리고 떠나게 되었음에 회지를 통하여 특별히 송별의 말씀.
- 정 종환 현 학생회장직을 맡으시고 노고가 많으셨던 학형께서는 금번 경제학 석사학위를 마치시고 6월말에 귀국 하신다. 조국의 번영을 위해 일을 하실 학형의 앞날을 위해 축원합니다.

◇ 영화상영

학생회에서는 3.1절 기념 행사로서 200여명의 많은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이순신 장군" 과 "황혼" 두편의 영화 상영을 가졌었다. 또한 봄 학기의 시작과 함께 재차 "집념"이라는 영화를 상영 했었다. 학생회에서는 앞으로 종종 영화 상영의 기회를 마련해 보려합니다. 행사를 위하여 수고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봄 소풍

지난 5월 26일 5 Mile Lake 공원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 자연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수고 하신 여러 학형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물심 양면으로 협조 하여주신 총임사관에 감사드립니다.

◇ Asian Week 행사

Asian 의 연례행사의 하나인 Asian Week 행사 S.C.C.C.의 A.P.S.A.와 U.W.의 A.S.A.공동주체와 각 단체의 후원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렸었다. 한국행사로서는 월, 화, 목요일에 걸쳐 "춘향전" 과 "한국 미술의 오천년" 두편의 영화를 상영했고 수요일에는 "We are family" 의 program 에 참가 한복 차림으로 차려입은 여학생들은 우리의 고전무용과 노래를 선사 했다.

Street Fair 로 행사의 마지막 날을 장식한 토요일에는 이 진숙 양과 이 기선 양의 부채춤과 도라지 춤을 선보였고 윤 학덕 태권도장의 태권시범이있었다. 특히 A.P.S.A. 의 회장으로 이번 행사를위해 수고 하신 서 영민 학형 그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 이창희선생님 별세

한인 고포사회에 일생을 몸 담아오신 이창희선생님께서 지난 5월 31일 숙환으로 별세하셨다. 향년 77세. 선생님께서 장로로 시무하시던 시애틀 한인 장로교회에서는 6월 2일 영결식을 가진후 교회장으로 Washelli 공동묘지에 안장했다. 선생님께서는 1902년 강원도 이천에서 출생, 1930년에 도미 하신후 49년간의 미국생활중 31년을 시애틀에서 살면서 시애틀 한인회를 창립, 초대 회장을 역임하시고 또한 교육자로서 언제나 따뜻하고 인자하신 미소로우리 학생회를 보살피와 주셨다. 학생회원 전원은 평소 고인의 깊은 뜻을 기리며 선생님의 명복을 빌고 심오신 뜻이 영원히 키워나가길 빕니다.

◇ Korean-American Study 과목 신설

이번 가을 학기부터 U.W. 정식 코스로서 Korean-American Study 과목이 생겼다. 3학점 과목으로서 시간은 Mon. 6:30-9:20 P.M. (자세한 내용은 가을학기 Time Schedule 에 나와있음) 등록 학생이 적을 경우 폐강될 우려가 많으니 학부학생 여러분께서 많이 택하여 앞으로 이 과목이 계속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 해야 하겠다. 특히 강의는 정치학과 대학원에 계시는 박건용 선배님께서 맡으실 예정이시다.

◇한인회 소식

◇ 3.1절 기념행사

한인회에서는 Lake City Community Center 에서 3.1절 기념 행사를 가졌다. 3.1절 기념 행사에 학생회원들이 전혀 참석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다음 부터는 이러한 행사에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한인회에서는 지난 4월 27일 헌판식을 가졌다.

◇ 회외유학생의 생활비등 승습 추정 변경

1. 정부는 외국의 외환 사정이 호전됨에 따라, 앞으로 회외유학생에 대한 외환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규 유학생과 비정규 유학생간에 차등이 없이 등록금 및 생활비 송금 한도우를 각각 등록금 실패 및 생활비 월 1,000불(가족동반가는 월2,000불) 범위내에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되

가. 등록금은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납부 통지서(금액 및 기간 명시)만 제출하면 그 납부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 인정하고(등록금 및 생활비의 지급 허가 기관은 외환은행임)

나. 생활비는 재학증명서만 제출하면상기 한도 금액내에서 신청하는 금액대로 지급하여 주고 있음.

2. 그 절차에 있어서는 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납부통지서에 대한 현지 공관장이나 기타 기관등의 확인은 요하지 않으나 재학증명서는 수락 기관의장이 발행한것은 물론 해당 공관에서 발행한 것도 가하며 이는 지정 은행에 등록시에만 필요로 하는것으로 매송금시마다 제출할 필요가 없음.

◇ Brown 씨 변호사 개업.

운 부원씨의 부근 되시는 Brown 씨는(UW법대 졸업)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업무를 개업. 특히 Brown 씨께서는 와싱턴 주 한국 학생회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하실것을 자청해 오셨으며 Visa 등 제반 법률적문제에 대하여 무료상담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전 학생회원의 이름으로 Brown 씨의 후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소 : Mr. Ronald G. Brown
2110 Exchange Buidg.
2nd. &Marion Ave.
Seattle, Wa 98105
TEL. 682-0565(office)
774-8927(Res.)



- 신착도서 목록 -

309177 이 선근
한민족의 국난극복사
씨문 출판사 1978

309179 손 승렬
도설한국사 현암사 1978

309180 금 서룡
고려 및 이조사 연구
국서관행회 1976

309007 제가백가
현암사 1977

309015 조선문학사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7

309016 박 용순
조선어 문제론 연구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8

309008 이 란삼편
한국 명 의 국선 현암사 1978

309009 최 학근
한국 방언 사전 현문사 1978

309010 한 완상
민중과 지식인 정우사 1978

HX 415.5
A6 M37 Lee, Chong-sik
Materials on Korean communism, 1945-1947.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ii, 1977, 268 p.

ref DS 902 B86 Butler, Lucius A.
Yongs, Chaesoon T.
Films for Korean Studies.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ii, 1978, 167 p.

Deuchler, Martina
Confucian gentlemen and barbarian envoys.
U.W. Press, 1977, 310 p.

회원 주소록

지난호에 대학원생의 주소록이 많이 빠졌기에 그것을 보강코저 한다. 특별히 학업중단한 회원은 의문이 있으리라는 학부 학생의 실정을 감안 대학원생의 전공을 기록한다. 주고 받는 선후배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두텁게 하고 저하는 바람이 있다.

- Byon, Jae Han : 3710 11th Ave NE #306
Seattle, WA 98105
632-6643
경제학
- Choe, Jae Won : 4009 15th Ave NE #325
Seattle, WA 98105
632-1449
정치학
- Choe, Won Ho : 6160 Redford dr. Unit 106
Seattle, WA 98115
523-6608
해공학
- Choi, Young Jung : 4009 15th Ave NE #829
Seattle, WA 98105
633-2721
수학
- Chung, Chang Hee : 431 14th Ave E #307
Seattle, WA 98112
543-7440 (Office)
기상학교수님
- Hwang, Ki Joon : 3775 15th Ave NE #303
Seattle, WA 98105
632-0183
화학
- Jo, Mi Jeoung : 4009 15th Ave NE #301
Seattle WA 98105
언어학
- Kim, Kyung Ha : 465 Mercer Hall
Seattle, WA 98105
543-8465
물리학
- Kim, Sang Tae : 3827 12th Ave NE #7
Seattle, WA 98105
632-0140
비교문학
- Kim, Sung Ku : 9223 9th NE
Seattle, WA 98117
784-1301
물리학
- Kang, Hee Joon : 11500 Pine hurst way NE #308
Seattle, WA 98125
363-8594
경제학
- Ko, Young Chan : 3715 University Way NE #304
Seattle, WA 98105
632-4533
화학공학
- Ko, Pil Soo : 1101 NE Campus Parkway
181 Mercer Hall
Seattle, WA 98105
543-8181
경제학
- Lee, Jung Bok : 4717 18th NE
Seattle, WA 98105
정치학
- Lee, Byung Guen : 3999 Union Bay Circle NE
Seattle, WA 98105
524-0211
목재화학
- Lee, Byong Chul : 4009 15th NE #723
Seattle, WA 98105
632-1393
- Lee, Jong Do : 12460 NE Northgate Way #10
Seattle, WA 98125
367-1743
토목공학
- Min, Kyung Whan : 4005 15th NE #408
Seattle, WA 98105
633-1387
심리학
- Park, Heung Soo : 1101 NE Campus Parkway
127 Mercer Hall
Seattle, WA 98105
543-8127
경영학
- Park Hyun Lyn
Park, Hyun Lyn : 3760 11th Ave NE #306
Seattle, WA 98105
633-2183
음악
- Park, Woong Su : 4216 180th SE
Bothell, WA 98011
485-8913
건축학
- Park, Chang Oup : 1101 NE Campus Parkway
317 Mercer Hall
Seattle, WA 98105
543-8317
지구물리학
- Shin, Jung Soo : 9223 9th NE
Seattle, WA 98117
784-1301
건축학
- Shin, Kyun : 634-2598
법학
- Shin, Ue Soon : 3760 Univ. Way NE #108
Seattle, WA 98105
633-4012
경제학
- Yoon, Young Sook : 1309 13th So. #6
Seattle, WA 98144
324-0543
실내장식

편집후기



첫 아기의 탄생에 이어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다.

미너 이지? 추남 이지?

초안 작성을 끝마친후 나는 어을리지않게 산실을 생각했다. 진동과 평온을 거듭하다 끝내 새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연상하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일까? 불안한 가운데서도 새 아기의 탄생을 고대하는 초조감, 무언가는 모르나 마음속 깊은곳에서 솟구치는 부딪함... 그런것들 일께다.

우선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심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의 경험도 있고 해서 좀 더 나은 회지를 만들어보려고 심혈을 기울였으나 아직까지 어려모로 미숙한점을 부인 할길없다.

이곳 고포사회에 잠재하고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첫 시도로 이번 호에서는 이민 고포 자녀교육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여러가지 제약으로 부족한 점이 많으나 앞으로 계속 공동의 과제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할것같다. 특히 좋은 글을 보내주신 오 계획 박사님, 정 하경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토를 눈앞에 두시고 끝까지 동분서주하신 학생회장의 노고를 특기한다. 학기중 바쁜 시간을 쪼내어 작업을 해야 했던 편집진도 고충이 많았다. 끝으로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서 두수 박사님, 그외 여러분, 특별 기고를 보내주신 박 암 선생님, 인쇄를 맡아 수고해주신 김 길량 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오)

"제 15호" 학생회지 드디어 선을 보임!!!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여러분을 뵈올때마다 회지 이야기가 나오곤 했지만 그때마다 변명(?)만 드리고 얼른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이렇게 늦은점 사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번 "15호"는 저번에 발간된 "14호"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작품인것을 저희 임원들이 이렇게 미안감과 응서를 자량으로서 변명합니다. 어때요? 정말대로 어디한점 꼬집을곳없이 아주 훌륭한 작품이죠? 그럴수밖에요! 저희 4명의 편집위원들이 머리를 한테 뚫치고 밀고 나가면 아무리 거대한 폭우라도 저희들을 물리치진 못하니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점이 순조롭지는 못했어오. 저번 못지않게, 아니, 이번 작품은 더욱 우수하게 만들어 보자는 노력과 많은 시간적인 노고도 포함됐죠. 저 역시 처음 해보는 임무라서인지, 아니면 저의 부족함때문인지 생각보다 몇배 이상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어오. 덕분에 못치던 "한타자기"도 배웠지만... 가고 싶었던 캠핑도 참아야했고, 방학이되어 집에 내려가고 싶어도 주어진 임무(?) 때문에 썩썩한 짐만 끌고 삼키고 말아야했죠! 이제 이러한 고통이 언겨웠던 일이라기 보다는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던것같아오. 또한 이런 계기로 말미암아 저에게는 또 학나의 있음수 없는 추억이 되기도 하고요! 이번 회지 역시 여러분의 투철한 참여와 협조로 모든 일을 무사히 끝 마칠수 있게 되어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수학 가정고사 구함

어름 방학동안 고등학생을 가르칠 수학 가정고사를 구합니다. 수학을 전공하셨거나 고등학생을 가르치실 수학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가정지도 기관중 같이 지내시던가(Kent) 방문 지도하실 분.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석보씨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775-8009)

우편 편의상 한인회 우편 permit 을 사용합니다. 법적상의 이유로 한인회주소로 발신 하오니 양해를 바랍니다.

<학생회 주소>

Washington State Korean Student Associ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Box 123 Room 300 Hub
Seattle, WA 98105

와싱턴주 한국학생회 회지

제 15 호

편집인 오 인식
이 진숙
이 기숙
김 응미

킷 이 동복

발행년월일 1979년 6월

발행인 정 종환

특별광고

국내국, 사립 대학은 우수한 교수 요원 확보를 위하여 해외에 유학중인 학자로서 소정의 학사 과정 또는 연구를 마치고, 귀국, 취업에 희망하는 인사를 다음과 같이 조직학이나 취업에 희망하는 학자는 취업 희망 대학과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주소 참조)

대학명	학과명	전공분야	유치	대우
광명대	연리인종학과	근층생태학	1인	{석사:전강 박사:조고수}
	물리학과	양자물리학	1인	
	화학학과	물리화학	1인	
	생물학과	해양생물	1인	
	지질학과	암석학	1인	
	자원공학과	자원공학	1인	
	재료공학과	재료공학	1인	
	(주소 강원도 춘천시 표자동 산 32)			

대학명	학과명	관련분야	유치	대우	
경북대	전자공학과	관련분야전공	18인	교수 5인 부교수 5인 조교수 4인 전강 4인	
	기계공학과	"	2인	부교수 1인 조교수 1인	
	생명공학부	"	2인	교수 1인 부교수 1인	
	응부외과	관련전공분야	1인	교수 1인	
	신경정신과	"	6인	교수 4인	
	해부학	"	9인	조교수 2인 조교수 9인	
	역사	"	1인	조교수 1인	
	물리	"	7인	조교수 1인	
	(주소 경북 대구시 산격동 1370)				

대학명	학과명	관련분야	유치	대우
부산대	기계공학과	관련분야전공	18인	부교수 5인 조교수 13인
	화학학과	무기화학	1인	조교수 1인
	물리학과	핵물리학	1인	조교수 1인
	부영학과	무기영문	1인	조교수 1인
	(주소 부산시 동태구 장전동 30)			

대학명	학과명	전공분야	유치	대우
전남대	산유화학공학과	물리화학	2인	{석사:전강 박사:조고수}
	양자물리학과	계통물리학	3인	
	화학공학부	다위구조	2인	
	화학공학부	양자계산	2인	
		양자물리	1인	
		양자물리계	1인	
		양자물리계	3인	
		양자물리계	1인	
	화학공업경영학과	산업공학	2인	
		산업공학	2인	
정보과학과	시스템공학	1인		
	시스템물리	1인		
	정보과학	1인		

대학명	학과명	전공분야	유치	대우
전북대	화학학과	이론화학(양자화학)	1인	{석사:전강 박사:조고수}
	계산통계학과	통계학	2인	
	물리학과	컴퓨터사이언스	2인	
	지질학과	핵물리학	2인	
	경영학과	고성물리학	1인	
		상산관리	2인	
		인사조직관리	1인	
	지역개발학과	PR론	1인	
	회계학과	정보회계	1인	
		관리회계	1인	
(주소 전남 광주시 신봉동 308)				

대학명	학과명	관련분야	유치	대우
전북대	기계설계학과	"	3인	{석사:전강 박사:조고수}
	전자공학과	관련전공분야	3인	
	물리학과	"	2인	
	화학학과	"	2인	
	생물학과	"	2인	
	수학과	"	5인	
	추산학과	"	3인	
	통계학과	"	3인	
	추지환경공학	"	2인	
	공업화학	"	2인	
	지질학과	"	5인	
	공업경영학과	"	3인	
	전자계산학과	"	3인	
	통신공학과	"	2인	
	산업공학과	"	1인	
(전북 전주시 평진동 30)				

대학명	학과명	전공분야	유치	대우		
충남대	기계공학과	관련전공분야	6인	{석사:전강 박사:조고수}		
	기계설계공학과	기계설계공학	3인			
	전자공학부	기계설계공학	2인			
	전자공학부	기계설계공학	2인			
	금속공학부	전자공학	2인			
	물리학과	핵물리·고체물리	2인			
	화학학과	관련전공분야	3인			
	경제학과	응용경제학	1인			
	(주소 충남 대전시 문화동)					

대학명	학과명	전공분야	유치	대우
부산대	부도학과	관련전공분야	1인	[전사: 전강수 부사: 전강수]
	경제학과	"	1인	
	경영학과	"	1인	
(주소 전남 부산시 용해동 산43)				
수원대	어업학과	관련전공분야	1인	조교수
	양식학과	"	1인	부교수
	해양경영학과	"	1인	조교수 ~ 전강
	해양수산학과	"	1인	조교수 ~ 전강
	자연생태학과	"	2인	"
	해양인문학과	"	2인	"
	해양공학과	"	2인	"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대연동 599)				
제주대	경영학과	관련전공분야	1인	
	통신공학과	"	2인	
	기관공학과	"	1인	
(주소 제주도 제주시 읍남 2동 581)				
건국대	화학과	관련전공분야	1인	조교수
	물리학과	"	1인	(학외출내평정후 평정후평정후)
	생물학과	"	1인	
(주소 서울 성동구 장안동 산93)				
단국대	기계공학과	관련전공분야	2인	전사: 전강, 부사: 전강수
	전자공학과	"	2인	조교수
	토목공학과	"	1인	전강
	산업공학과	"	1인	
(주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산8의3)				
시강대	전자공학과	관련전공분야	1인	조교수
	화학공학과	"	1인	조교수
	회계학과	"	1인	조교수
(주소 서울 마포구 신수동 1)				
연세대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2인	조교수
	전기공학과	전기공학	3인	조교수
	건축공학과	건축공학	1인	조교수
	토목공학과	토목공학	2인	조교수
	기계공학과	기계공학	3인	조교수 부교수
	금속공학과	화학·물리·금속	2인	조교수 부교수
	요업공학과	신소재·재료	2인	"
	전자공학과	전자공학·회로망	3인	"
	식품공학과	식품공학	1인	"
	(주소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134)			

대학명	학과명	전공분야	유치	대우
영남대	기계공학과	관련전공분야	3인	전강 } 경력에 조교수 } 따라 부교수 } 보직 교수 }
	금속공학과	"	2인	
	토목공학과	"	2인	
	건축공학과	"	2인	
(주소 경북 대구시 남구 대구시 317의1)				
광양대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관련전공분야	7인	경력에 따라 보직함.
	전자공학과	"	7인	
	전기공학과	"	3인	
	원자력공학과	"	1인	
	화학공학과	"	2인	
	(주소 경북 대구시 남구 대구시 317의1)			
경북대 (산업공과)	기계공학과	관련전공분야	17인	외국 거주자인 영우 APT. 제공
	전기공학과	"	10인	
	(주소 서울 성동구 행당동 산 8-2)			
영남대	물리학과	관련전공분야	1인	1980학년도 임용 예정임
	전기공학과	"	1인	-조교수 이상-
	기계공학과	"	2인	
	전자공학과	"	2인	
(주소 경남 마산시 웅암동 449)				
영지대	전자공학과	관련전공분야	2인	조교수 이상 경력에 따라 보직
(주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1동 433-26)				
아주대 공과대	기계공학과	관련전공분야	1인	조교수 이상 경력에 따라 보직
	전자공학과	"	1인	
	화학공학과	"	1인	
	공업경영학과	"	2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원천동 산5)				
창주대	전자공학과	관련전공분야	2인	경력에 따라 보직
	공업경영학과	"	1인	
(주소 충북 청주시 내동동 36)				
항공대	항공관리학과	Airport Management	2인	경력에 따라 보직
		Air Transportation		
	항공기계공학과	시스템공학	1인	
		유체공학	2인	
		항공역학	1인	
	항공통신공학과	데스킹통신	1인	
항공전자공학과	통신시스템	1인		
	전자계산분야	1인		
	전자회로분야	1인		
	자동제어	1인		
	공화분야			
(주소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화전리 200-1)				

김철준 보험



SEATTLE 사무실 : 363-3704
 집 : 367-1534
 TACOMA 사무실 : 588-0333

CHUL J. KIM
 FIELD UNDERWRITER
 NEW YORK LIFE INSURANCE COMPANY



We guarantee tomorrow today.

주소 : 4121 SEA-FIRST BLDG.
 SEATTLE, WASH. 98154



FIVE SEAS

불고기 > 취급
 갈비 >

영업시간 연장

월요일 - 금요일

10 AM - 8 P.M.

토요일 : 10AM - 7 P.M.

일요일 : 10AM - 6 P.M.

543 N.E. Northgate Way, Suite C,

Seattle, Wash. 98125 (206) EM 3-6850

서울식품

한국식품 일체를 취급합니다.



OPEN
 10A.M.-8P.M.
 (7 days a week)

계절의 미각을 든구는

ORIENTAL FOOD
 AND GIFTS.....

6417 Steilacoom BLYD., S.W.
 Tacoma, Wa 98499
 전화: (206) 588-9222



525-9222

KIM'S TRAVEL SERVICE



MEMBER

DOWNTOWN ROOM 606 LLOYD BLDG
603 STEWARD SEATTLE 98101 WA
THE ORIENT AND THE WORLD

- INDIVIDUALS
- GROUPS
- TOURS
- AMTRAK
- AIRLINES
- STEAMSHIPS
- HOTELS
- TRAVEL INSU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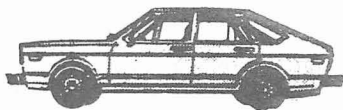
624-2227-8

364-9934

(EVENINGS)

101 AUTO REPAIR

FOREIGN & DOMESTIC
NAM-IL HO



금번 본인은 킬러 Licence를 획득 Used Car 킬러를 개업하고 신용분위와 열가로 봉사하고 있사오니 많은 왕래를 바랍니다.

- BODY SHOP 전문
- 차체 안전, 보증수리
- 무료 견적
- 보험 수리시 문의 환영
- 한국인 특별 우대
- 사고즉시 연락하면 토잉비 일부 공장부담

9:00AM - 7:00 PM DAILY BUS. 525-5778

9:00AM - 2:00 PM SATURDAY RES. 789-2655

1009 AURORA N. SEATTLE, WA. 98133

그랜드 식품

☞ 저렴한 가격 · 신선한 식품 · 친절한 봉사 ☞

한국인이 경영하는 유일한 정육전문 취급점

소문난 집고기집



불고기 · 갈비로부터 어떠한 특수고기의 주문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날채주문은 미리 주문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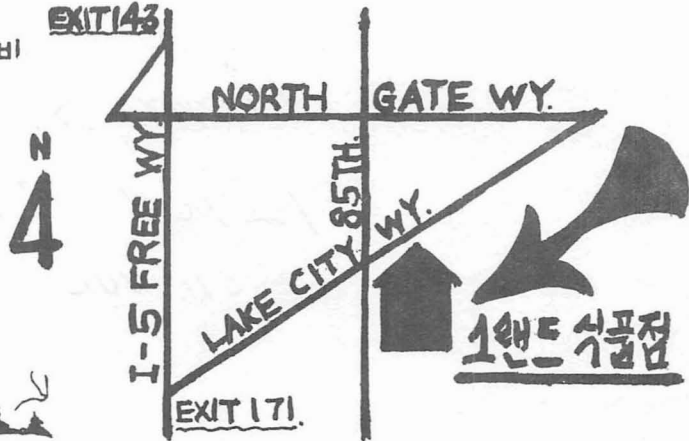
OPEN 7DAYS A WEEK 9AM~9PM

한국인이 경영하는 야채농장과 협약하여
그랜드 직매장을 개점.

(열무, 청각무, 싹갓, 붓추, 미나리, 풋고추 등등...)

- 식품부 :
- 풍성한 채소와 과일
 - 즉석에서 썰는 불고기와 갈비
 - 각종 동양식품

- 선물부 :
- 게브랄티등의 약품
 - 전기제품
 - 화장품



8512 20TH AV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 (206) 525-8334



119 YALE AVE. N. SEATTLE, WASHINGTON 98109 (206) 622-7371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612 6th Ave. So.
P.O. Box 24992
Seattle, Wa 9812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919

3

*Mt. Mann S. Hahn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